

소사별

2024

평택 문화의 향기를 담아내는 종합문예지 **41**
Culture Magazine Sosabul Vol. 41





문 : 文 / 기획특집
현대 평택의 사회와 경제

- 04 현대 평택의 산업별 변화
서태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문위원
- 08 '군사도시' 평택의 전환기와 미군
금보운 영남대학교 연구교수
- 12 현대 평택의용소방대의 결성과 활동
김희식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화 : 化 / 잇다
《소사벌》 연재

- 16 빛바랜 사진이야기
박성복 평택학연구소장
- 20 평택문화를 반추하다
황수근 문화사업부 학예연구사
- 22 여기는 평택이다
최치선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 26 우리지역 문화예술인
권혁재 시인
- 30 평택을 품은 이야기
강하늘 문화사업부 학예연구사
- 34 경기도이야기 - 경기옛길
김동현 경기역사문화유산원 전문연구원
- 38 일상과 예술을 가까이
유지향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소사벌
2024

평택 문화의 향기를 담아내는 종합문예지
Culture Magazine Sosabul Vol. 41

2024년 4월 / 통권 제41호

발행인 평택문화원장 오종근
편집 오민영, 최치선, 황수근, 최희련, 강하늘
발행처 평택문화원
발행일 2024년 4월 30일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전화번호 031-655-2002
전송 031-654-8807
홈페이지 www.ptmunhwa.or.kr
출판 나무기획 031-654-0104

© 2024 평택문화원 ISSN 1739-9556
※ 이 책의 게재 내용은 평택문화원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평택문화원의 동의 없이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이 책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평 : 平 / 채우다
평택문화 이야기

- 42 평택의 국가문화유산 ‘괴태곶봉수대’
김경탁 평택시 문화유산관리팀장
- 46 평택 부용산 토성 학술발굴조사
이동성 기념문화재단연구원장
- 50 도서관 구술사업,
지역 소통의 가능성을 열다
이수경 평택시 안중도서관장
- 54 팽성생활사박물관
윤경원 씨앤에스 주식회사 전시총괄팀장
- 58 문화예술공간, 교차공간818
이정은 교차공간818 디렉터
- 62 2023 평택마시멜롱축제
신석근 평택문화예술포럼 대표
- 66 평택어린이농장 학농원
문화사업부
- 68 책과 노니는 집, 아르카북스
최희련 경영지원부 주임



택 : 澤 / 더하다
평택문화원 이야기

- 72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팀
- 74 평택에서 문화생활 200% 즐기기
경영지원부
- 78 2023 평택시 지역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정두민 평택시 SNS시민기자단 기자
- 86 문화CAFE
경영지원부
- 86 사유의 형태들 2024
웃다리문화촌
- 90 제11회 대한민국 삼봉정도전서화대전
- 92 소사벌화보
- 96 평택문화원 소개

현대 평택의 산업별 변화

서태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문위원

평택의 지리적 여건과 1차 산업

평택 지역은 지리적으로 평야와 완만한 구릉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위천과 안성천 등 하천이 많아 1차 산업인 농업을 영위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서해안에 접하고 있어 농업 뿐만 아니라 어업이 가능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간척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서해의 바닷물이 하천을 따라 깊숙이 들어와 염해(鹽害)를 입어 농민들의 삶은 어려웠다.

한국전쟁으로 농업 생산성이 더욱 하락했는데, 난민정착사업으로 팽성읍 신대리·석봉리·도두리, 고덕면 동고리, 포승읍 홍원리, 청북면 고잔리 일대에 간척사업이 이루어졌다. 또 1974년에 준공된 아산만방조제와 남양만방조제로 1980년대까지 경지면적과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방조제 축조는 염해와 홍수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데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평택지역은 1960년대 후반 선진 낙농업을 모델로 한 낙농업 시범목장이 들어섰던 곳이다. 1964년 12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을 때 아우토파를 달리며 도로 옆의 젓소 목



바닷물이 넘쳐 평택의 피해상황을 보고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 7월 10일》



남양호 일대 포승읍 흥원리와 원정리 간척지

장을 보고 낙농업에 대한 구상을 했다고 한다. 정부는 낙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뉴질랜드 정부와 합의하여, 1968년 고덕면 여염리의 50만여 평 일대에 한뉴시범목장을 설립했다. 한·뉴시범목장이 평택에 자리잡게 된 것은 다른 지방에 비해 산이 적고 구릉지와 평야로 이루어져 있어 축산업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덕분이었다. 1969년 정부와 합작투자로 출범한 한국낙농가공은 1974년 평택공장을 준공하였으며, 1980년 사명을 매일유업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도 평택 지역은 서해에 접하고 있으며, 진위천·안성천·황구지천·오산천 등 하천과 저수지가 있어 예로부터 연

안어업뿐만 아니라 내수면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해 평택 지역에도 농가수와 어업수는 점차 감소하였고, 2021년 기준 평택시의 총생산액에서 1차 산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7%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¹⁾ 그러나 평택시 전체 면적의 42%가 농경지와 목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²⁾ 평택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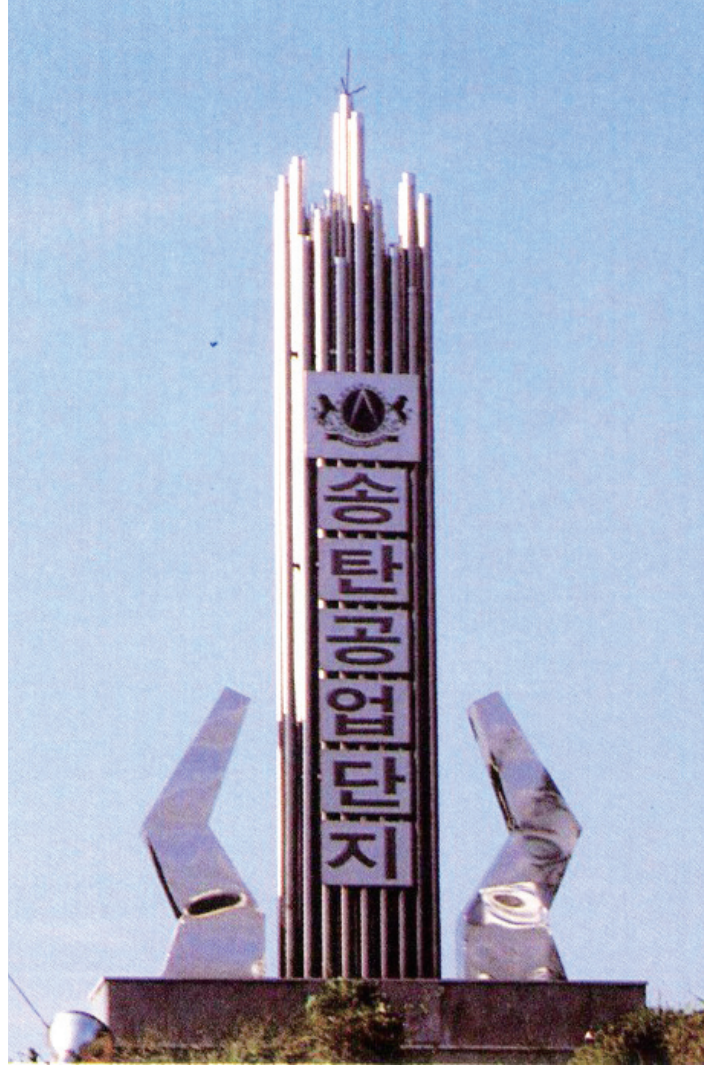
1) 평택시, 《2022 제27회 평택통계연보》 2023. 1차 산업 생산액 비중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2차·3차 산업의 생산액이 월등히 높은 연유로 해석된다.

2)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산업단지의 조성과 2차 산업의 발달

평택시에서 2차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생산액은 2021년 기준, 전체 총생산의 43.2%이다.³⁾ 평택시 산업구조의 큰 중심축이다. 특히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평택공장과 LG전자, 최근 입주한 삼성전자 등으로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크게 늘면서 평택시 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 평택 지역의 제조업은 크게 변화였다.

1950년대 평택 지역의 2차 산업은 정미소, 양조장, 연탄 공장 등 1백여개의 사업체가 존재했었다. 1960년대부터 공업용수 이용이 편리한 진위면·서탄면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장들이 산발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부터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정부는 서울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이를 선별적으로 분산하여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안을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평택은 개발유도권역으로 지정되었고, 1984년 모곡동 일원에 송탄산업



송탄공업단지탑(1990년대)

단지를 조성키로 하였다. 이후 171만 8천여 평 규모의 포승국가산업단지와 평택·장당·추팔·어연한산·칠괴일반산업단지 등도 수도권 공장 재배치를 위한 목적으로 계획·조성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외국 첨단기업의 유치와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해 현곡·오성·진위산업단지가 조성됐으며, 포승2산업단지와 고덕국제화단지, LG디지털파크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며 2차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처럼 평택시의 2차 산업은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유치·발전했으며, 첨단기술 사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 발전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평택시, 《2022 제27회 평택통계연보》 2023.

3차 산업의 발전 :

사통팔달의 도시에서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

평택시의 생산구조에서 3차 산업인 도소매업 및 금융·보험·운송 등 서비스업의 생산액은 2021년 기준, 전체 총생산의 55.1%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평택 지역이 사통팔달의 도시로 발달한 상업과 물류·운송업, 특히 평택항 개발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평택은 삼남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주요 육로와 해로가 지나던 지리적 이점이 있어 예로부터 장시가 발달했다. 그리고 근대 철도와 도로가 건설되면서 평택지역의 중심지가 재편되기 시작했다. 철도 부설로 들어선 원평동의 구 평택장은 한국전쟁 이후 통복동 일대로 이전해 통복시장이 되었다. 1952년 K-55 미공군기지가 창설되자 그 주변을 중심으로 상업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평택국제중앙시장과 송

탄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평택항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평택항은 1986년 10월 31일 처음 노르웨이 LNG 운반선이 들어오며 개항했다. 당시 평택항은 돌핀부두 시설이 전부였으며,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부두가 전무한 상태였다. 평택항의 본격적인 개발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00년대 급성장한 중국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은 크게 늘었고, 평택항의 역할과 비중은 크게 신장되었다. 평택항은 중국의 황해 연안 산업벨트와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을뿐더러 수도권에 위치해 수도권과 중부권으로 이동 시간과 운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평택항의 물동량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부상하였다. 평택시는 명실상부 사통팔달의 도시에서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소사별**

평택항





안정리마토예술제

군사도시 평택의 전환기와 미로

금보운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긴 한국의 역사를 대륙과 해양
으로부터의 침략이라는 군사적 사건으로 채우게 한 원인이었
다. 이러한 외국의 침입과 대립이라는 한국 역사의 군사적 성
격을 한 지역으로 응축하면 평택이 될 것이다. 평택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청이 조선에 파병하자
일본이 텐진조약을 근거로 조선에 파병하며 벌어진 청일전쟁

의 격전지였다. 일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1904년, 또 다른 대륙인 러시아와 조선에 대한 이권 경쟁을 벌이며 러일전쟁이 발발했고, 평택은 일본군에 의해 그들을 지원하는 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을 식민화하고, 제국을 확대하기 위해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면서 안정리 일대에 해군시설부대 비행장과 격납고, 보급기지가 설치되었다.

이처럼 한국 근대사 격변의 중심지였던 평택의 외국군 주둔 역사는 미군의 주둔으로 완성되었다. 평택에는 현재 송탄 K-55 미 공군기지와 더불어 전국에 흩어져있던 주요 미군 부대와 기능이 집결한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가 주둔하고 있다. 캠프 험프리스는 단순히 단일 미군 부대의 기지가 아니라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가 위치하고있는 전국 주한미군 기지의 본부(Headquarter)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대외 전략 속에서 일본(오키나와 포함)에 주둔한 미군기지와 연계되어 있다. 평택이 한반도 안보를 넘어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관할하는 허브(hub)가 된 것이다. 평택에 육군 제51보병사단 예하 169연대의 직할 중대와 4개의 대대, 해군 제2함대사령부, 공군 작전사령부와 방공포병사령부, 30방공관제단, 그리고 정보통신부대인 7항공통신전대 등 많은 국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유도 미군기지의 주둔 및 그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

미군은 해방 이후 안정리에 설치된 일본군 기지와 군사시설을 활용하였는데, '6·25전쟁'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평시에도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 공식화되었고, 이에 따라 미군은 자신들이 활용할 부대를 넓히기 시작했다. 그 결과 당시 송탄의 K-55 공군기지와 안정리의 K-6 부대의 시설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평택에 하나의 신도시가 들어선 것과 비슷한 충격을 주었다. 조용한 농촌 도시에 미군이라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기지가 건설되면서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의 주택이 강제로 소개되고, 주민들이 건설 노동에 동원되기도 했다. 동시에 미군 기지는 전쟁

평택국제중앙시장(1960년대)



이후 늘어나는 실업률 속에서 주민들의 생계수단이 되었다. 기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미군을 대상으로 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지 주변으로 모여들기도 했다. 주민의 생계수단이 바뀌었고, 이주민이 증가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농업이 중심을 이루던 평택 주민의 생계수단은 상업과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1979년 평택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식료품 및 잡화점(65개), 유흥업 및 대중음식점(50개), 숙박업소(48개), 다방(20개), 포목과 의류상(26개) 등 주로 개인의 소비에 의존한 상업이 전체 평택 상업의 약 60.5%를 차지하고 있었다. 자동차 정비 및 철공소(27개), 시멘트 등 재료 판매(25개)와 같은 산업 관련 판매업은 전체 상업의 약 15%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업은 주로 평택의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증점적으로 형성되었다. 미군기지 주변 지역은 미군 소비자라는 왕성한 구매력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를 이루었고, 미군 소비로 인한 거래로 시장이 매일 활기를 띠었을 정도였다고 회고된다. 평택의 미군 주둔이 한 도시의 경제구조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미군과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문화적 영향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지 주변 지역에는 이국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미군은 평택 주민이 미군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각종 문화교류 행사, 구호 및 원조 활동을 전개하였고, 행정 운영 및 지원에도 개입하였다.

물론 1971년 '안정리 사건'처럼 미군 기지 내에서 해소되지 못한 인종 갈등이 기지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어 흑인 미군의 난동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었다. 미군에 의한 폭행과 미군-주민 간의 갈등, 미군 기지의 물자를 몰래 유출하여 판매하는 암시장의 형성과 마약 문제 등이 평택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정기적으로 비행하는 군용기의 소음은 현재까지 계속되

하와이에서 K-55 오산공군기지에 착륙한 U.S. AIR FORCE(미공군) 수송기





K-6 캠프험프리스 활주로 조성(1952.9.24)

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미군의 주둔은 경제·사회·문화·군사적 측면에서 평택의 입지를 바꾸어 놓았고, 기지 확장으로 인한 영향력 역시 단편적이지 않았다. 이에 새롭게 ‘미군기지 평택 시대’를 맞아 평택의 미래와 공존의 방향을 조망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오히려 평택 미군 주둔의 역사와 그 영향력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미군 주둔으로 인한 평택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무엇을 계승하고 경계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찾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군사도시’ 평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과거의 흔적을 돌아보는 것이 결코 역행하는 일만 이 아닌 이유이다. **소사릴**

현대 평택의용소방대의 결성과 활동

김희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연구센터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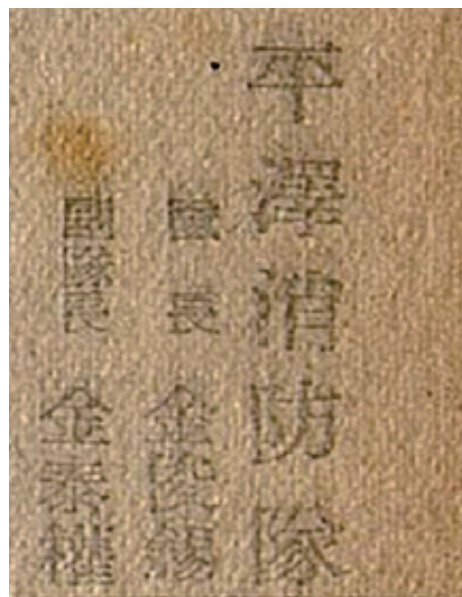


평택군평성읍부녀의용소방대 활동(1990년대)

이 글에서는 현대 평택 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 결성과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관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 단체를 말한다.

평택지역의 소방조는 언제 처음 개설되었는지? 《평택군지》에는 소방대가 처음 설치된 연대는 상세히는 알 수 없으나 3·1운동 당시 본 군에서도 방방곡곡에 독립 만세를 불렀는데 평택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이 현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자리 잡고 있는 자란산에 모여 만세를 불렀을 때 어떤 친일분자가 소방대에 설치된 불 종(鐘)을 퍼서 소방대원을 비상소집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평택의용소방대가 3·1운동 이전에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초기에는 의용소방대가 있는 곳이라면 시가지 형성지역인 평택 서정리, 안중 등에 설치되어 있었을 뿐이다.

조선총독부 관보와 1932년 신문 기사를 토대로 볼 때 평택소방조는 1912년 3월에 창설한 것으로 보인다. 1912년 3월 결성한 평택 의소대는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들의 활동무대가 되면서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



평택소방대(연합신문 1950.1.28)

방조를 만들었다. 3·1운동 이후 1924년 1월 1일 서정소방조를 시작으로 1925년 1월 25일 평택소방조 1지대가 생겨났고 관할 지역은 비전리, 합정리였다. 안중소방조는 진위군 오성면 안중리에 설치되었으며 개서일은 1925년 3월 26일이다. 봉남소방조는 북면 봉남리 일원 동면 견산리 지역에 1926년 2월 26일 설치했다. 1933년 지금의 평택시 세교동, 유천동에 자위조직인 사설소방조가 문을 열었다. 평택 내에서도 재조일본인으로만 구성된 소방조가 있었고, 조·일 공동소방조가 운영되기도 했다. 소방조 출동 비용은 각 부가 부담하거나 지역주민들의 기부 때문에 운영되었다.

1939년 적의 공습이나 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경방단은 1945년 해체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의용소방대가 꾸려졌다. 1954년 1월 의용소방대가 재조직되면서 평택동 35번지에 평택의용소방대 건물을 건립했다.





송탄의용소방대가 있던 서정극장(현 캐피탈호텔) 앞 급수탱크와 비상사이렌 타워(1968년)

1958년 3월 소방법 제정으로 의용소방대는 확고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초기 송탄 의소대의 활동은 어떠한지를 밝힐 수 있는 기록은 없다.

3대 정태호 대장의 증언을 통해서 1970년대 의소대의 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 처음에 1958년 서정극장(구: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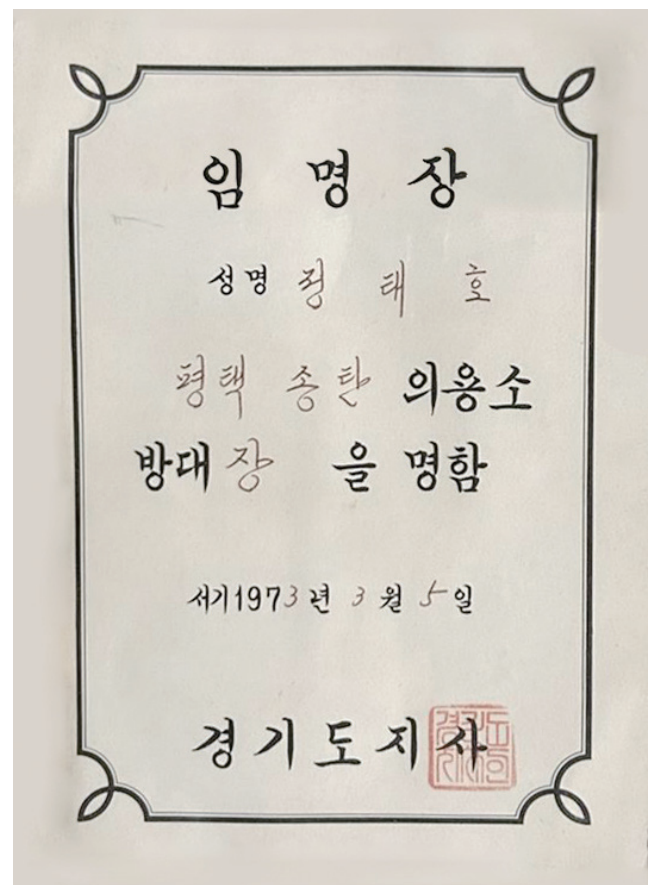
극장) 앞 쪽에서 삼일 상회를 운영했던 김정식씨가 펌프차를 가지고 시작했다. 누가 시킨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의용 정신으로 했다. 2대 김대선 대장이 경기도지사 임명장 받았으며 당시 K-55에서 제작되는 지프를 2대 얻어서 시작했다. 1973년에 3대 정태호 대장이 취임해 보니 차 두 대(펌프카)가 땅속에 묻혀있어서 취임 기

념으로 차를 꺼내 수리해서 사용했다. 시작할 때 대원이 30명이 있었고, 확장되어서 대원이 50명으로 늘어났다. 당시 수원소방대(매산동)에서 교육을 받아서 소방대 활동을 시작했다. 의소대원들은 방화복을 입지 않았고, 임명직 5명은 K-55에서 받은 방화복을 입고 활동했다. 지휘차 1대, 소방차 4대로 운영했다. 당시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불이 나면 K-55에서 물을 채우고 난 뒤 현장으로 가서 물을 폈다. 소방대 지원비는 군에서 기름값으로 1년에 60~70만 원 정도 받았고, 운영비는 대장이 부담을 해야 했다. 당시 K-55에서 불이 자주 났고, K-55 들어가서 기름을 가득 넣고 나오기도 했다.

처음에 2대 김대선 대장 판잣집 같은 곳에서 의소대를 시작했고, 3대 정태호 대장이 취임해서 소방차 3대가 들어갈 수 있게 (구)전화국 자리에 2층으로 건물을 올렸다. 당시 물난리가 나서 어린아이가 떠내려가는 것을 구하기도 하고, 좌동에서는 부부싸움 하는 과정에 애가 죽는 사고가 일어나서 처리하기도 했다. 미군 골프장 쪽에서 물난리가 나서 정문 앞집이 휩쓸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수구 철조망에 걸려 있는 시신을 찾기도 했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클럽에서 불이 자주 났었는데 불이 기지 안으로 옮겨붙을 것을 염려해서 미군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송탄지역의 경우 1958년 3, 4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준수의 주도로 신장동 690번지 소재 서정극장(구:대영극장) 앞

건물에서 김경식씨를 중심으로 송탄의용소방대가 조직하였다. 당시 장비는 미군에서 잉여 받은 지프 1대와 GMC형 전향식 펌프 및 물탱크 1대가 전부였다. 의소대 대장 이하 대원을 중심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하였다. 1983년 9월 1일 송탄소방서가 조직되면서 의용소방대는 재난현장에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조정되게 되었다. 1983년 여성 의소대들도 활동을 시작했다. **소사별**



제3대 정태호 평택 송탄 의용소방대장 임명장

빛바랜 사진이야기 / 개인사 시리즈3 배움(중고등학교)



타자 자격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1969년 / 평택종합고등학교(평택시 비전동)

현대사회에서 컴퓨터가 보급되고, 노트북 컴퓨터와 테블릿PC가 보편화되면서 사라진 타자기는 1960~80년대 사무자동화를 대표하는 기기였다. 타자기는 손가락으로 자모와 부호, 숫자 등이 쓰여 있는 키를 눌러 종이 위에 글자를 찍는 기기이다. 특히 키보드 위의 키를 누르면 거기에 쇠로 만든 활자가 잉크 리본을 사이에 두고 종이를 때려서 글자를 찍는 방식으로 종이에 인쇄가 된다. 타자기를 사용해 각종 문서를 전사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업을 '타자수'라고 불렀는데 주로 상업계열 고등학생이 자격을

취득해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진은 현재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로 교명이 바뀐 평택종합고등학교에서 1969년 치러진 국가기술자격시험 타자기능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시험을 치르고 있는 남녀 학생의 모습이다.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의 모습에서 지지함을 엿볼 수 있는 가운데 시험 감독관 네 명이 응시자들을 주시하고 있다. 평택고등학교와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로 분리된 평택종합고등학교는 당시 인문과와 공업과, 농업과, 상업과로 이뤄진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고등학교였다.



한광고등학교 교련수업 총검술 1971년 / 한광고등학교(평택시 비전동)

교련敎鍊은 일제강점기에 도입됐다가 해방 후 폐지됐다. 이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련 수업이 다시 시작된 것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공작원이 남침한 ‘1.21사태’ 이후 도입됐다. 교련 수업은 전직 위관급 또는 영관급 장교가 교사로 재직하며 남·녀 학생들을 가르쳤다. 일주일에 두 시간 진행된 교련 수업은 남학생의 경우 교련복과 전투화, 각반을 착용하고, M1 목총이나 M16 모형총으로 제식훈련과 총검술을 배웠다. 여학생의 경우는 교련복에 삼각건과 구급낭을 착용한 후 환자 응급처치

나 부상자 이송법을 주로 배웠다. 1994년부터 군사훈련이 공식적으로 전면 폐지된 후 응급처치와 안보, 인성교육으로 바뀌었으며, 2011년부터 교련 과목이 ‘안전과 건강’으로 변경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교련 수업이 진행됐을 때는 학교마다 학도호국단을 구성, 학생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등을 두어 매주 월요일 아침 브라스밴드 반주에 맞춰 열병이나 분열 등 사열을 진행했다. 사진은 한광고등학교 학생들이 합성수지로 만든 M16 모형총으로 교련 교사의 구령에 맞춰 총검술을 배우는 모습이다.



한광중학교 관악부 시가지 퍼레이드 1972년 / 한광중학교(평택시 평택동)

2000년 초까지만 해도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시민·군민 체육대회나 궐기대회, 성화 봉송, 외교사절 환영 행사, 거리 캠페인, 기념식 등 각종 시·군 단위 행사에 동원하는 경 우가 잦았다. 당시에는 교육 목적이며 애郷심을 키운다는 이유로 관급 행사에 학생을 동원했지만, 사회상과 가치관 변화에 따라 학습 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행사에 학생 을 동원하는 일이 점차 금지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학교마다 대부분 밴드부나 관악부가 있어 행진 대열의 맨 앞쪽에 위치하며 행진을 이끌기도 했다. 사진은 1973년 '제2회 평

택군민의날' 행사와 함께 열린 군민체육대회 시가행진에 참여한 한광중학교 밴드부원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행진 하는 모습이다. 한광중고등학교 밴드부는 당시 평택군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유명세를 보이며 각종 관악경연대회에 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평택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 사에 단골손님처럼 초청돼 연주했다. 사진은 농협중앙회 평택군지부 사거리로 한일다방, 진미당, 화춘옥, 평택이발 관, 기쁜소리사 등의 간판이 보인다.



안일여자중학교 등교 모습 1976년 / 안일여자중학교(평택시 안중읍)

과거 교복 시대를 살아온 세대들은 이른 아침 등굣길 교문에 들어서는 일이 가장 긴장된 일과 중 하나였다. 학생들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교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교문이 보이는 저 멀리서부터 친구들과 삼삼오오 줄을 서서 손발을 맞춰 교문에 들어서야 했다. 교문 안쪽에는 학생회 고학년 임원이 '선도부' 또는 '규율부'라고 쓰인 노란색 완장을 차고 학생들의 머리와 복장, 이름표 등을 학교 규정에 맞게 잘 갖췄는지 한 학생 한 학생 세밀하게 검사했다. 머리카락, 가방 등에서 학생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면 안 되며, 균일한 잣대로 복장과 머리

를 검사해 모든 것이 준수해야만 교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머리가 규정보다 길거나 치맛단이 짧으면 선도부원의 '열외'라는 외침과 동시에 일행과 떨어져 벌칙을 받았다. 사진은 단발머리에 춘추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은 안일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줄을 맞춰 교문에 들어서는 모습이다. 교문 위 표지판에 '열공, 의심나면 살펴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라는 반공 구호가 당시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소사벌**

글 · 사진 박성복
Pyeongtaek Photobank/Memory in Pyeongtaek 대표

평택문화를 반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속 한·뉴목장-

황수근 문화사업부 학예연구사



한·뉴목장에서 뉴질랜드 전문가와 함께 기념사진(1974)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과학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축산연구기관으로 그 뿌리는 1906년에 설립한 권업모범장 축산부로 한다. 설립 이후 축산연구의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축적해왔으며, 축산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중 평택과 관련한 자료는 1969년 뉴질랜드와 추진한 한·뉴목장이 다. 《국립축산과학원 70년사》(2022년)와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이 있으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1969년 뉴질랜드와 추진한 한·뉴 시범 목장이 평택 고덕에 설립되었다. 이 목장은 우수한 젖소를 미국과 캐나다에서 도입하여 개량과 생산에 힘을 기울인 결과 매년 150~250두의 젖소를 각 도에 배부하였고 확대 재생산을 통해 이를 더 많은 농가에 보급하도록 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여 준 분들

OYMIS PROJECT WAS ASSISTED BY

1974 - 1978

WILLIAM R. LOBB
KENNETH H. C. LEWIS
COLIN D. KINGSBURY
GEORGE H. DAVIS
GRAEME H. HARR
GRAHAM F. TATE
ALAN W. BEMBROUGH
RODERICK D. PLANK
JOHN W. GUNNE

[illegible]

기념비문

여기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 간에
축산기술 협력과 이를 통한 우호 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1974.4.1.~1978.12.31.까지
한-뉴 육우 시범 목장을 완성하고
이 목장이 한국 육우 산업의 선구자적인
기틀을 마련한 보람의 뜻을 길이 빛 내고자
이 비를 세운다.

1978.12.3

여기는 평택이다

최치선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송탄의 북쪽 송북동
동쪽 끝에 있는 마을 동막

태봉산 자락아래 있는 동막마을은 조선후기에는 마을 서쪽으로 삼남대로가 지났고 염봉재 중턱에는 백현원, 마을 입구에는 우곡정이 있었다. 자연마을은 아래뜸·동뜸·서뜸으로 구분된다. 태봉산 자락 아래 경주이씨와 인동 장씨가 일가를 이룬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전원주택이 많이 지어져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소사림**

태봉산에서 본 동막마을과 송북동 전경





동막마을 전경

동막마을 360 파노라마





동막저수지 |

제3대 송북동장을 지낸 안건식씨가
1993년 퇴직 후 '기호수리농지조합
(현 농어촌공사)'으로부터 임대 받아
토사로 메꾸어져 있던 저수지를
정비하여 낚시터로 운영하고 있다.

동막저수지와 안건식-일러스트 유선웅





마을회관과 마을 안길



마을 어귀에 있는 150년 된 느티나무



송탄동으로 넘어가는 삼남길 큰흔치 고개



우리지역 문화예술인

권혁재 시인

나는 평택군 팽성면 신대2리 211번지(출생 당시 주소)에서 태어나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단국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200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첫 시집 《투명인간》을 비롯하여 《안경을 흘리다》와 《누군가의 그늘이 된다는 것은》 등 아홉 권의 시집을 출간했고, 《이기적인 시와 이기적인 시론》과 《시를 위한 공간인식과 공간의 시학》, 두 권의 저서가 있다.

1980년대 초 내가 재수를 하고 있을 무렵 둘째 형이 군복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때 다가온 둘째 형의 갑작스런 죽음은 낮선 이방인의 흔적처럼 좀체 마음을 열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다. 특히 남들이 당한 일을 내가 직접 겪고 나니 실감이 나지 않을뿐더러 세상이 곧게 보이지 않았다. 그 후로부터 죽음은 나에게 늘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시를 써도 시에 드러내는 것들이 “까마귀, 검은 산, 죽은 시” 등 어두운 색채로 나타났다. 그래서인지 나의 시에서는 밝은 시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대체로 어둡고 칙칙하다. 즐겨 읽은 시집 또한 “이상, 박인환, 세르게이 에세닌” 같은 요절한 작가들의 시집이었다.

죽음은 역사의 저변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현상이다. 항상 변화하고, 시간과 공간에 의한 가역성을 동반하기도 한다. 죽음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희생이나 어떤 대가라면 인식이나 실존의 한 부분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죽음이 역사와 상관관계가 있고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차 사라져간다면 그 죽음에 대한 역사는 왜곡될 것이다. 내가 분노하고 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까닭에서다. 나는 리얼리스트나 실존주의자가 아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시를 쓰는 시인일 뿐이다. **소사령**



평택역

안내방송에도 평택을 지나친 당신
마음만 플랫폼에 보따리같이 내려놓고
들녘 바람에 눈물 흠치며 차창 밖을 보던 작은 얼굴

역광장에서 헤살대며 당신을 기다리던 가을은
입 썩 바람을 따라 떠나가 버리고
하차하지 못한 당신을 안내하듯이 기적을 올린다

기다림이 내일로 연착되어도
객차에서 들판으로 쏟아져 내린 당신의 미소가
노을이 되어 들어와 곱게 앉는 대합실



대추리에서 대추리로

주둔지가 들어서면서

역지로 이식된 나무들

차린 아침 밥상은

불도저가 먹어 치우고

놀란 아이들은 발가벗은 채

들판으로 내쫓겼다

자고 나면 집터는

기지의 외곽초소가 되었고

모내기를 막 끝낸 논들은

헬기장으로 사라져

철조망에 포위당한 채

삼 대째 살아온 대추리

세상이 좋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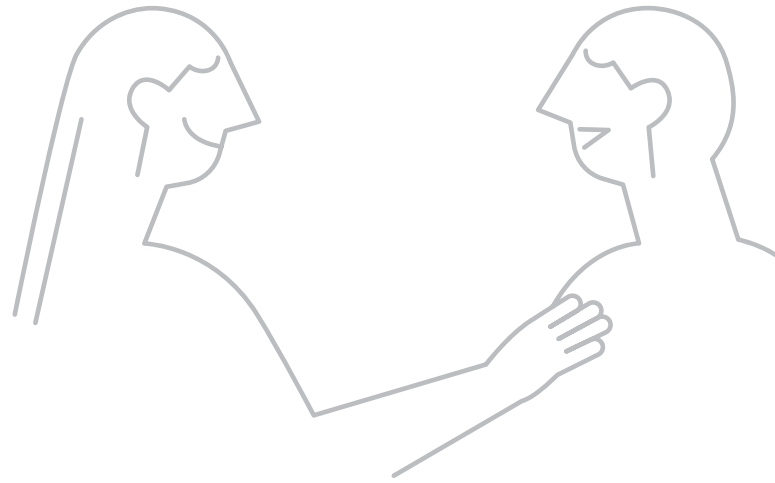
할 말은 다하고 살아도

삼자루 옮겨진 설움

누구도 알 길 없어

대추리에서 대추리로

대추나무를 옮겨 심었다



당신은 당신입니까

나는 나이지만

나와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와 있는 당신은 또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이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나를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라고 말하지만

나는 당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입니까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입니까

당신을 아는 나는 나이지만

나와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당신입니까

평택을 품은 이야기

오룡마을의 특별한 정월대보름

글 강하늘 문화사업부 학예연구사 / 그림 김가람 작가

평택 진위면 마산리에 위치한 오룡마을에서는 특별한 정월대보름을 보냅니다. 오룡마을 정월대보름은 다른곳과 달리 정제(우물고사)와 줄다리기를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서 정월대보름이 가까워지면 마을은 분주해집니다.

오룡마을 대동회에서는 정제를 지내기 위해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따져 흠 없는 사람에게 제사를 맡깁니다. 정월대보름 전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우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금줄을 쳐서 사람들의 출입을 금했습니다.

오룡마을 사람들은 다 같이 힘을 모아 정월대보름 전까지 커다란 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줄다리기를

을 만들기 위해서는 짚을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모아온 짚을 한곳에 모아 잔줄을 꼬고, 꼬아진 잔줄을 또 꼬아서 커다란 암줄과 솟줄을 만들었습니다.

정월대보름 당일 마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북적거립니다. 아침에는 정제가 열리고 정제가 끝나면 삼사오모여 척사대회(웃놀이 대회)를 하며 오후를 보냅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면 오랜 역사를 가진 오룡마을 줄다리가 시작됩니다.

오룡마을의 우물이 가진 의미

우물은 마을을 구성하기 위한 필수요소였습니다. 우물은 필요한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해주었기에 사람들은 우물에게 감사하며 더 나아가 우물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우물에 제사를 지내면서 한 해 동안 물이 잘 나오기를 기원하고 병균이 침입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집 안에 우물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은 마을의 공동우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물은 마을의 이야기가 오가는 사랑방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날이 덥든 춥든 여자들이 물동이, 물지게 지고 우물로 물 길으러 다녔지. 우물 옆에서 빨래도 하고. 그러면 여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시댁 식구들 이야기 하는거지”

오룡마을의 우물은 산에서 내려온 풍부한 지하수로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풍부한 지하수덕에 마을에는 5개의 우물이 있었지만 현재는 2개의 우물만이 남아있습니다. 정제가 시작되면 마을사람들은 마을회관 옆 가장 큰 우물에서 정제를 지낸 뒤 다른 우물로 옮겨 정제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오롱 우와 할아버지
줄어 엄청크고 길어요
- 할아버지 정월대보름 줄다리기를 위해 마을
주민들이 열심히 만든 줄이란다
- 오롱 저도 가서 줄을 당길래요
- 할아버지 가서 암줄을 잡고 줄다리기를 하렴.
오늘의 승리도 분명 암줄일거야

오룡마을의 줄다리기

오룡마을의 줄다리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590년 말경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위해 마을주민들이 정월대보름에 줄다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달이 뜨면 풍물패의 길놀이와 함께 오룡마을 줄다리가 시작됩니다. 줄다리가 시작되면 남자들이 암줄과 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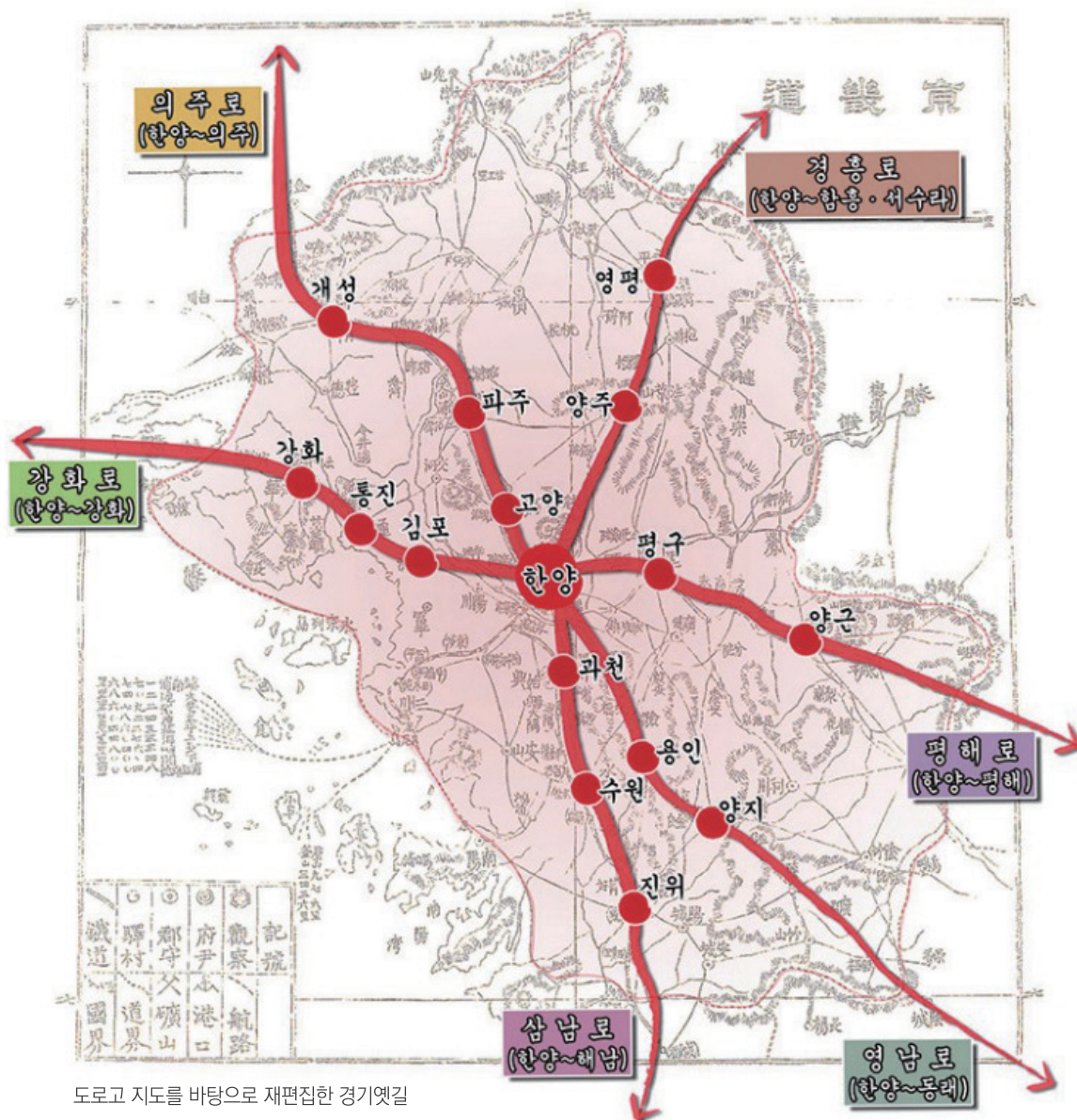
줄을 메고 동네를 몇 바퀴 돈 후 마을회관 앞에 줄을 놓습니다. 숫줄에는 신랑복장을 한 남자, 암줄에는 신부복장을 한 여장남자를 태웁니다. 그 뒤로 남자들이 숫줄을 잡고 여자, 노인, 아이는 모두 암줄을 잡고 줄다리기를 합니다. 승리는 언제나 암줄이었습니다. 암줄은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조건 암줄이 승리해야 마을의 한 해 농사가 풍년을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사별**



경기도이야기

평택시에서 만나는 경기옛길

김동현 경기역사문화유산원 전문연구원



정몽주와 정도전의

엇갈린 운명

경기옛길은 조선시

대 실학자인 신경준 선

생이 저술한 《도로고(道路

考)》의 육대로(六大路)를 토대로

조성한 도보 길이다. 경기옛길은 처음 기획

단계부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유

산이나 주요 지점을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의

문화유산은 물론 민담이나 설화까지 깊이 있게 조사하였

고 실제 탐방로를 조성하면서 노선 곳곳에 이야기판을 설

치하여 ‘역사문화 탐방’이라는 경기옛길의 가치를 담고자

하였다.

경기옛길 6대로 중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길은 삼남길이다. 《도로고》에서는 해남로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양에서 시작해 전주, 해남을 지나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길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삼남 지방으로 가는 길이라 하여 삼남대로라고도 한다. 이 길은 조선시대 육로 교통의 중심축으로 삼남 지방의 풍부한 물산이 오갔으며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으로 부임하던 길이자 삼봉 정도전,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떠났던 길이기도 하다.

경기옛길 삼남길은 현재의 과천, 안양, 의왕, 수원, 화성, 오산, 평택을 지나는 약 100km의 구간이 조성되어 있다. 총 10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제9길부터 제10길까



진위향교

지 약 34km 구간이 평택시에 속한다. 영남길이 지나는 용인시와 더불어 삼남길이 지나는 평택시도 대규모 개발이 활발한 지역으로 우회 노선이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이다.

먼저 삼남길 제9길 ‘진위고을길’은 평택의 옛 중심이었던 진위고을을 만나는 길로 오산 맑음터공원에서 야마리쪽으로 조금만 걸으면 평택시 진위면에 닿을 수 있다.

진위면은 조선시대 진위현 관아가 있었던 지역으로 진위향교(경기도문화재자료)에서 진위천 인근의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옛 진위현의 위세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 현재 진위향교에는 대성전과 명륜당, 동·서재, 내·외삼문 등이 잘 남아있다. 대성전은 유학자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그중에서도 진위향교 대성전은 18세기의 건축기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진위천을 건너 계속 길을 가다 보면 ‘흰치고개’라고 불렸던 소백치와 대백치를 지나 역사적 재평가 논란이 있던 원군장군묘(경기도기념물)에 도착하게 된다. 임진왜란 발발 당시 경상우수사였던 원군은 이순신과 함께 합포, 적진포, 사천 등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1597년 이순신의 뒤를 이어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지만, 칠천량에서 전라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 등과 함께 전사했다.

원군장군묘를 지나면 삼남길 제10길 ‘소사원길’이 시작된다. 이곳에는 특별한 우물이 있는데 물맛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임금이 벼슬을 내렸다는 ‘옥관자정’이라는 우물터가 남아있다. 옥관자정을 지나면 배꽃이 만발하는 들판을 만날 수 있다. 아쉽게도 지금은 대규모 개발로 많은 배밭이 사라졌지만, 배나무공원이나 배다리공원 등 곳곳에서 하얗게 핀 배꽃을 만나볼 수 있다. 다시 길을 따라 걸으면 경기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대동법시행기



념비'를 만날 수 있다. 조선 효종 때 영의정 김육의 상소로 대동법이 시행되었는데 부역의 불공평이 없어지고 민간의 상거래까지 활성화되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그 덕을 기념하기 위하여 효종 10년(1659)에 기념비를 세웠다.

대동법시행기념비를 지나 가슴이 탁 트이는 옛 소사벌을 걸으면 안성천교에 도착하는데 이곳이 경기도와 충청

도의 경계이자 경기옛길 삼남길 구간의 종점이 된다. 평택시는 그 면적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다. 경기옛길센터는 그동안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아이들이 소사벌을 걸으며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키운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 **소사벌**

하늘에서 바라본 소사벌 풍경



일상과 예술을 가까이

— 평택북부노인복지관 한국무용반 이야기 —

유지향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제14회 사회교육사업 발표회(자화자찬)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교육(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를 배우는 정보화·학습 프로그램과 노래교실, 라인댄스, 트로트댄스, 미술, 요가, 단전호흡 등 취미·여가프로그램, 바리스타와 동화구연 자격증반 등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총 26과목을 개설하여 700명의 어르신이 복지관에서 매일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의 특별한 프로그램인 '북부실버문화교실'은 평택지역 60세 이상 시민이라면 매주 금요일 10시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웃음특강, 노래교실, 지역문화 예술공연 관람 등으로 매년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은 2011년부터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한국무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소고춤을, 2023년에는 장구춤을 배우며 복지관에서 활기찬 노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무용 강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춤선을 따라 배우며 절제된 동작과 부드러운 춤사위를 배우며, 무언가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노년기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특히 2022년에는 제8회 세종대왕전통문화예술대회에 출전하여 단체상을 거머쥐며 그간 무더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노력한 것에 결실을 보았습니다. 큰 무대에서 수상한 경험은 어르신들에게



장구춤 연습



평택시 평생학습박람회 공연



실버문화교실 웃음특강



단전호흡 수업

깊은 자부심과 자만하지 않고 부단히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겸손을 함께 심어주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무용은 동아리로 이어져 연습에 연습을 더해 완성도를 높여 노인주간보호센터, 양로원, 지역 축제 등 지역 관내 어디든 한국무용 공연이 필요한 곳에 재능나눔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문화예술교육을 여러 해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일상에서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어르신



라인댄스 수업

들에게는 단편적인 교육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지속할 수 있는 무용, 연극 등의 프로그램이 '쉽지 않았지만,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노년기 삶의 활력을 높이는 데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노년기 평생학습 기회 제공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배우고 도전하는 설렘을 느끼고 어르신들의 일상에 비타민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력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사별**



스마트수업(키오스크)

평택의 국가문화유산이 된

사적史蹟 괴태곶봉수대

김경탁 평택시 문화유산관리팀장



제5로 직봉노선및 평택 괴태곶봉수대 위치

봉수제도의 성립

봉수(烽燧)는 우역(郵驛)¹⁾과 더불어 근대의 전기통신이 도입되기 전까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통신수단이였다. 평상시에는 연기와 불빛으로 국가의 안녕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급변 시에는 국가의 위기상황을 어느 통신수단보다 빠르게 중앙정부로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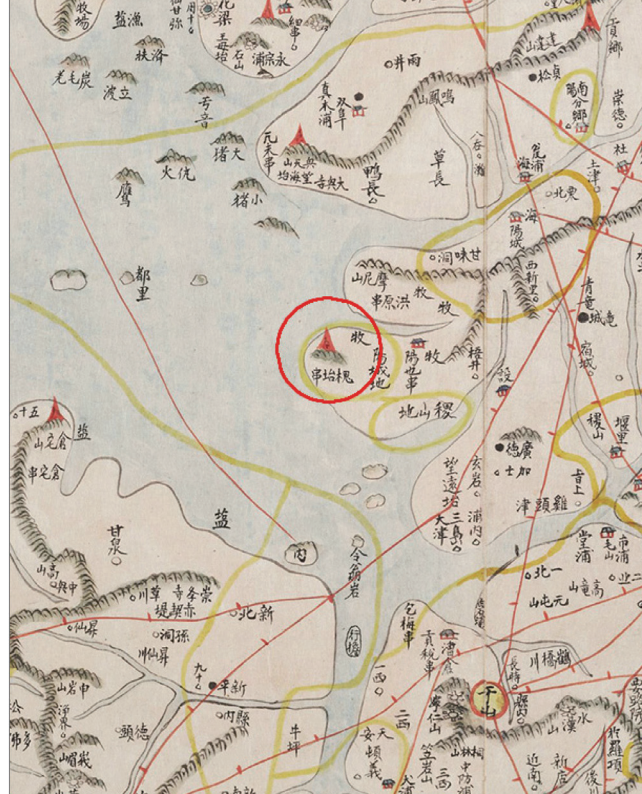
특히 한반도는 현재에도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열강의 관심 대상이듯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근세까지도 거란·여진·몽골 등으로 대표되는 북방 이민족과 남쪽의 왜로부터 수많은 침탈을 겪었고 이를 예방하고 경계하는 기능을 하였던 것이 봉수제도였다.

봉수제의 시원은 중국에서는 주(周) 이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한(漢)을 거쳐 당(唐)대에 제도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상으로 삼국시대에 봉수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들이 있지만 봉수제라 할 수 있는 형태는 고려시대에 성립되고 조선시대에 확립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세종5년(1423) 2월에 중앙봉수를 도성의 목멱산(현재 남산)에 설치하면서 전국의 봉수노선을 개편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봉수제와 관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병조(兵曹)²⁾에서 목멱산 봉수의 위치를 정하고 한성부(漢城府)³⁾는 봉수를 쌓아 운영하게 하였다. 중앙봉수의 개편과 함께 전국에서 관리하던 봉수도 재정비하게 되었다.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전국에 700여개소를 운용하였으나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을 계기로 봉수제가 폐지되었



《동여도》(19세기)에서 고대곶봉수대

고, 다음 해 각 처의 봉대와 봉수군이 헐파되면서 봉수제도는 기능을 다하고 말았다.

현재까지 전국에 약 400개소의 봉수대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개 산 정상과 같은 고지대에 있어 발견되지 않은 곳도 상당수 있으리라 추정된다.

봉수의 운영

봉수는 성격과 구조·형태에 따라 경봉수, 연변봉수, 내지봉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봉수는 수도에 설치되었던 중앙봉수를 말하며 고려시대에는 개경의 송악산에 2기의 경봉수가 있었으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멸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의 목멱산에 5기의 경봉수를 두어 운용하였고 파괴되었던 것을 현재는 일부 복원하여 활용하고 있다. 연변봉수는 해변 연안에 위치하여 왜적들이 출몰하는 것을 경계하였고, 내지봉수는 육로를 따라 설치되었던 봉수로 국가의 주요 길목과 요충지를 중심

1) 중앙 관아의 공문을 지방 관아에 전달하며 주요 도로 30리마다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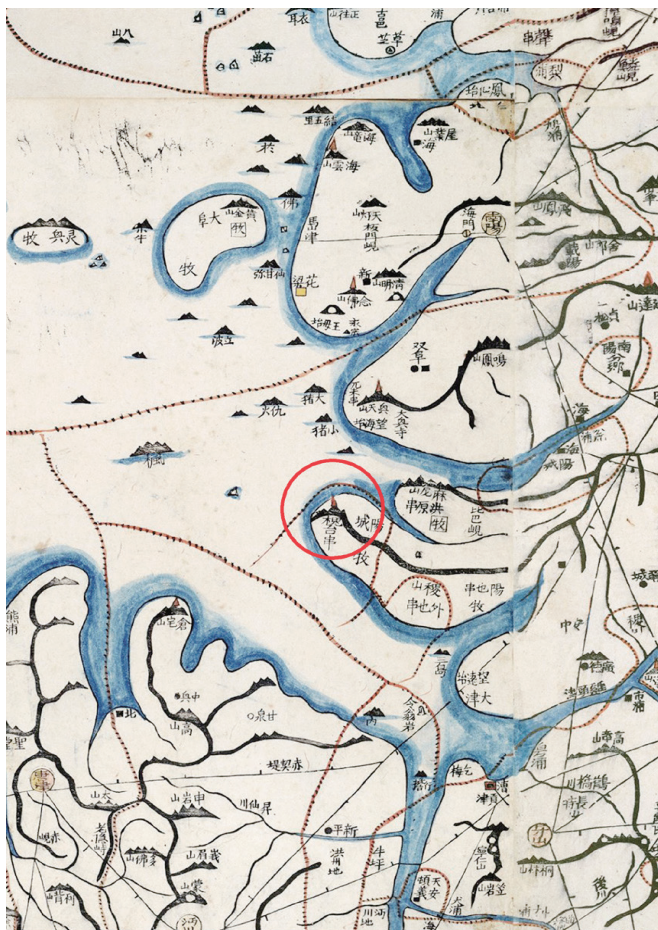
2) 조선시대 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3) 조선시대 수도(首都)를 관할하는 관청

으로 한양까지 각 지역의 상황을 전달하였다.

봉수의 운영은 시대와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봉수제가 확립된 조선시대에는 5개의 노선으로 운용되었다. 제1로는 함경도 경흥에서 강원도를 거쳐 목맥산에 도달했고, 제2로는 부산 다대포에서 출발하여 경상도·충청도와 경기도를 연결하였다. 제3로와 제4로는 각각 평안도 강계와 평안도 의주에서 황해도를 거쳐 한양으로 이어졌고, 제5로는 여수 방담진에서 전라도, 충청도를 지나 경봉수로 집결하였다.

5개의 노선을 잇기 위해서 기존의 봉수를 활용하거나 새



《대동여지도》(1861)에서 과태곶 봉수대

로 구축하기도 하였는데 5개의 노선을 잇는 핵심 지역 봉수를 직봉(直烽)이라 하여 중요하게 관리하였고 직봉에서의 신호 단절을 우려하여 간봉(間烽)을 설치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특히 왜구의 침입이 잦은 남해안과 서해안에는 여럿의 간봉을 두어 직봉을 보조하고 위급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5개의 노선으로 국가의 평안과 위급을 한양으로 전달하기 위한 신호체계는 주연야화(晝煙夜火)라고 해서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을 이용하였다. 안개나 구름으로 시야가 흐릴 경우에는 봉수군이 직접 달려가거나 역마(驛馬)를 활용하기도 하고, 뿔나팔이나 화포 등의 소리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봉수의 연기와 불을 올리는 방법은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적의 수에 따라 봉수의 사용을 1개에서 4개로 차등을 두었다면 조선시대에는 5개의 연조를 이용하여 평안할 때는 1개, 경계 밖이면 2개, 경계에 이르면 3개, 경계를 침범하면 4개, 접전하면 5개로 신호하였다.

봉수대에는 운영을 위한 몇 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불을 피우거나 연기를 올리는 거화시설(擧火施設)과 봉군(烽軍)을 보호하기 위한 방호시설, 그리고 그들이 기거하는 주거시설로 구성되었다. 아직까지 조사 사례가 많지 않지만 연변봉수와 내지봉수의 중요도와 입지 여건에 따라 구조와 형태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각 거점별로 구축된 봉수에는 운영을 위한 인원들이 배치되었다. 경봉수·연변봉수·내지봉수처럼 운용체계와 지역에 따라 운용인원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봉수군을



괴태곶봉수대 터 표시석

지휘하고 감독하는 하급장교인 봉수별장 1인을 중심으로 상시근무자인 감관 1명과 봉수군 5명이 1개조를 이루고 5일씩 차례로 5개조가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괴태곶 봉수

2023년 11월 포승읍 원정리에 소재하고 있는 괴태곶 봉수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사적(史蹟)으로 지정되었다. 평택시 소재 문화유산 중에서 국가문화유산인 보물 3건, 무형 1건이 있지만 사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괴태곶 봉수는 여수 돌산도 봉수에서 출발하는 제5로 직봉노선의 44번째 봉수이며 군산 화산 봉수에서 시작하는 간봉의 15번째이자 종착점에 해당한다. 괴태곶에서 모인 신호는 다시 화성의 홍천산 봉수로 이어져 목벽산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직봉과 간봉이 교차하는 위치에 있어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잔존하는 형태와 규모, 연조의 개수,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고려시대에 처음 축조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규모 면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봉수 유적 중에서 최대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표조사만으로 확인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명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봉수와 주변시설을 확인하여 그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아직까지 괴태곶 봉수에 대해서는 밝혀진 내용이 많지 않다. 따라서 발굴조사를 통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가 확인된다면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괴태곶 봉수의 실체와 함께 봉수제도 등 당시의 모습을 복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소사별**



광여도 평택현(19세기 전반)



조사지역 전경

평택 부용산 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토성의 조사성과와 향후 조사 방향

이동성 기남문화재연구원장

조사현황

평택 부용산 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토성에 대한 학술발굴조사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산3-15번지 일원에 대하여 문화재청 허가(제2023-0957호(2023. 7. 31))를 득하여 2023년 10월 17일 ~ 2023년 11월 13일(실조사일수 10일)까지 토성 내 80㎡에 대하여 (재)기남문화재연구원이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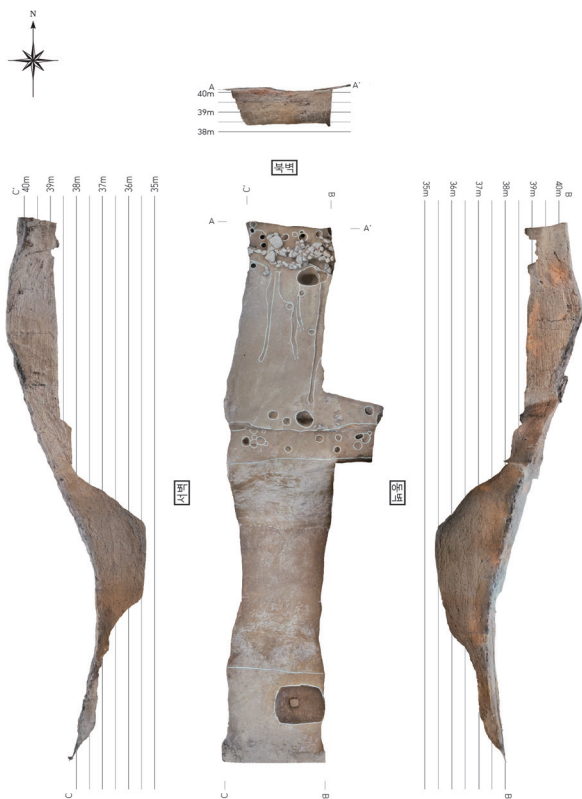
조사 경위 및 경과를 살펴보면, 2022. 5. 23. ~ 2022. 7. 29.까지 부용산 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제2022-0745호) 조사결과, 1지점 남쪽 경계에서 대지 조성토와 더불어 토성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2022. 10. 14.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심의를 결정하였다. 2022. 12. 21.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제12차 심의 결과, 조건부 가

결로 공원부지 발굴조사가 진행된 부분의 복토 및 시설물 설치를 결정하였고, 보완사항으로 유적(토성)에 대한 추가 발굴 및 문화재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요망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우리 연구원과 평택시청은 2023. 6. 15. 평택 부용산 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토성(토루) 학술발굴조사 용역을 계약한 후 2023. 7. 31. 평택 부용산 근린공원부지 내 토성 발굴조사 허가(2023-0957, 2023.7.31.)를 득하여 2023. 10. 16 ~ 2023. 11. 3.(실조사일수 10일) 평택 부용산 근린공원부지 내 토성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2023. 11. 13. 학술자문위원회 개최하고 조사성과와 향후 조사방향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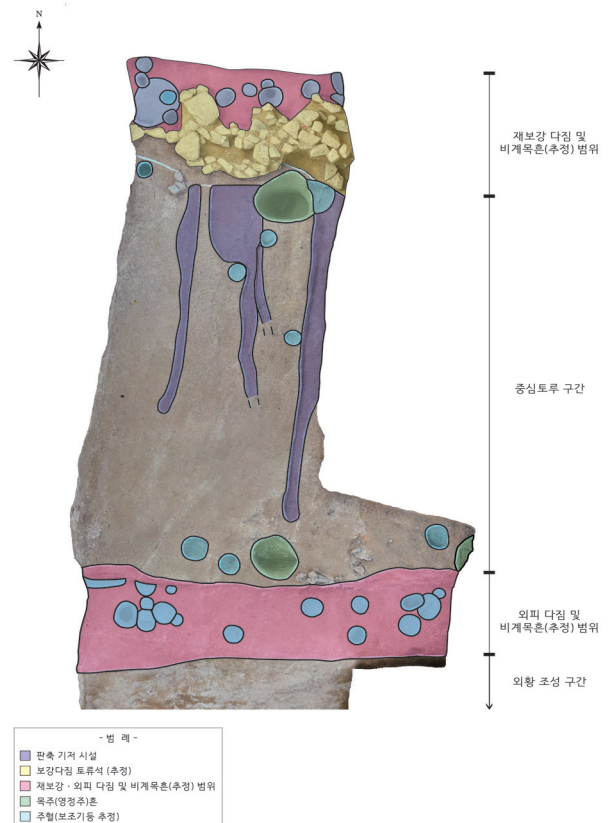
발굴조사지역은 행정구역 상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산3-15번지에 위치해 있다. 기존 발굴조사 범위 중 1지점에 해당하는 범위의 남쪽에 위치하며, 기존 발굴조사 당시 4개의 pit 조사를 진행한 범위의 층위와 연결시켜 조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기존 범위에 대한 수목 및 공원부지 조성 등의 여러 상황으로 금번 조사부지를 선택한 후 길이 약 20m, 너비 약 4m 정도의 규모로 토성을 절개하여 층위 및 하단 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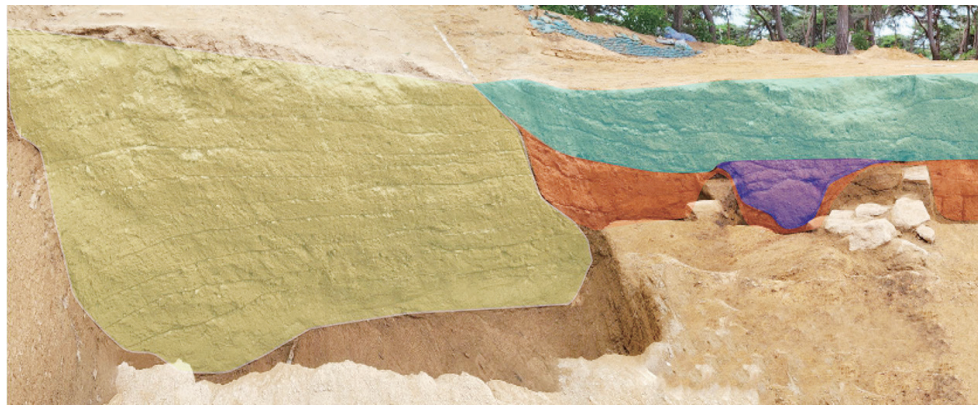
조사결과, 토성의 축조순서는 성 기반층 조성-외황 조성-



부용산 근린공원부지내 토성 현황도



부용산 근린공원부지내 토성 트렌치 내부 평면도



1지점 고려시대 토성 조사 후 전경(동→서)-기존 발굴조사 당시

중심토루 판축 및 내측 대지조성(점토다짐)-외측 보강다짐, 내측 보강다짐 순으로 축조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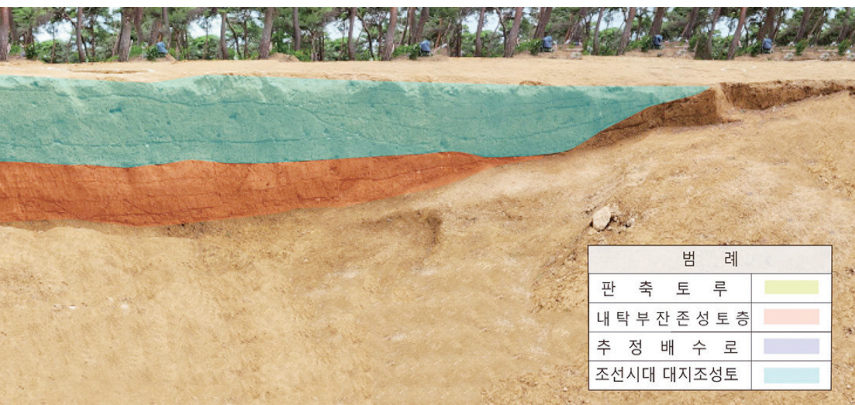
토성의 잔존높이는 1.92m로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층위조사 결과, 중심토루 판축은 총 5번에 걸쳐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번째 판축과 동시에 내측 대지조성을 위한 점토다짐이 진행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중심토루 내측 판축이 절개되고 다짐된 흔적이 확인되어 토루 내측 판축과 보강다짐이 일부 훼손되어 중심토루 판축을 일부 절개하고 내측 보강다짐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측 외항은 금번조사가 남측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전체규모는 파악할 수 없었으나, 토성 외측 보강다짐 제일 하층에서부터 바닥까지의 높이는 약 2.7m 정도이며, 폭은 7.79m 임을 감안하면 경기 남부 및 인접한 충청남도 북부지역에 분포한 고려시대 토성의 외항시설 중 제일 양

호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외항의 규모는 금번 조사된 양상으로 보아 정방형인 토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면에는 영정주와 비계목으로 추정되는 목주흔이 확인되었으며, 영정주 흔으로 판단되는 목주흔은 약 2.5m정도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말여초 토성에서 확인되는 목주 간격 중 비교적 짧은 간격을 두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내측 보강다짐 내에서 토류석으로 추정되는 할석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는 양상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주변 나말여초 토성에서 확인되는 외부 석렬과 내부 석렬과는 차이가 있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유물은 목주흔 내부에서 나말여초시기로 판단되는 도기 구연편과 도가니 저부, 미상철기 등이 출토되었으며, 성벽 제토과정에서 어골문이 시문된 암키와편이 확인되어



1지점 고려시대 토성 3번 PIT 토층세부-기존 발굴조사 당시



트렌치 전경

토성의 축조시기가 신라말에서 고려초기로 비정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대지조성다짐층 및 내부보강다짐층에 목탄이 일부 섞여 노출된 것을 시료채취하여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의뢰한 상태로 좀더 정확한 토성의 축조연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발굴조사는 부용산 근린공원부지 내 토성(부용산 토성-가제)의 남쪽 벽 일부를 4×20m 범위로 절개하여 층위 양상 및 바닥면의 시설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조사 결과, 토성의 일부 범위 및 축조양상, 축조시기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축조시기는 토성 안쪽 범위 중 기 조사된 부용산 근린공원부지 발굴조사 결과양상과 같은 시기 및 출토유물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 조사결과와 함께 동일시기 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축조시기는 성벽조사 성과

와 출토유물 등으로 보아 대체적인 연대가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성의 정확한 구조는 제한된 범위로 진행된 금번 학술발굴조사의 한계로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향후 조사는 토성의 형태가 정방형임을 감안하여 금번 조사를 진행한 남쪽을 제외한 동·서·북쪽 성벽조사 및 문지로 추정되는 범위에 대한 조사, 외항시설 및 관련 구조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토성의 구체적인 구조 및 성격 등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정비 복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를 계기로 장기적으로 평택시에 분포하고 있는 성곽유적(토성, 석성 등)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안성천 일대의 당시 생활상과 더불어 정치, 군사적 환경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사별**

도서관 구술 사업

지역 소통의 가능성을 열다

이수경 평택시 안중도서관장



1. 도서관, 기억을 기록하다

도서관 구술사업은 2015년 시작하여 올해 십 년을 맞이한다. 도서관이 마을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고,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질 마을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하기 위해 구술생애 기록사업을 시작하였다. 청소년과 중장년 마을기록가들이 노년층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다. 2019년부터는 평택 남부로 옮겨 도서관에서 만난 할머니들을 인터뷰하고 배농사, 마을 음식, 모녀 4대 등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았다. 2022~2023년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삼십여 년 이상 칠십여 년에 이르는 가게 이야기를 담았다.

‘나 산거 뭐 들을 게 있어.... 들을 만 했어?’라고 되물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청소년과 중장년들이 기록하며 세대공감 프로그램으로 출발한 구술사업은 근현대 평택사료를 모으는 귀한 기회가 되었고 도서관 구술사업에 참여한 중장년과 노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책을 통한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도서관 구술생애사업은 이 모든 과정을 아우르며 매년 다른 색을 덧입히고 있다.

2. 도서관 구술, 출판플랫폼으로 이어지다

구술 기록을 기반으로 다양한 변주를 거듭한 도서관 구술사업은 2023년 출판플랫폼 사업으로 확장하였다. 평택에서 살아 온 구술자들의 이야기를 면담자(시민기록가)들이 이해하기 위해 평택사 강좌가 정례화되고, 평택 설화와 민담은 시민들이 재창작하여 그림책, 웹툰, 동화 등으로 출간되어 평택 특유의 문화콘텐츠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구술과 관련한 활동은 책자발간과 온라인 출판 - 경기도 메모리, 평택시 도서관 홈페이지, 평택시 도서관 TV, QR코드 안내 - 등을 통해 시민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고 있다.

구술생애사업, 평택사 강좌를 품다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는 그 터전과 주변 마을에 대한 역사나 관련 활동이 함께 이뤄진다. 오성면에서 구술사업을 추진할 당시 청소년들은 오성마을 역사 강의를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평택의 과거와 현재를 알게 되었다. 구술사업에 참여한 고등학생은 “나에게는 당연한 평택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써서 만든 곳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평택에 대한 애정이 생긴다”고 하였다. 마을 역사 강의와 마을트래킹, 마을버스투어도 함께 하였고 평택 관련 사진자료를 활용한 역사강좌도 곁들이고 있다. 구술자와 마을이 바뀔 때마다 강의 주제도 바뀌어 지금 평택을 이뤄 온 그 길을 걸어보고 있다.

평택 옛이야기, 웹툰과 그림책이 되다

구술사업은 2023년까지 아홉 권의 구술기록책자, 열 권의 설화 그림책, 열 건의 설화 웹툰이 출간되었다. 시민들과 구술 책자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책자에 실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읽고 수필쓰기를 하고, 평택 설화와 민담을 그림책과 웹툰으로 창작하여 마을 이야기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특히 설화 그림책 프로그램은 인근 중학교의 국어교사의 요청으로 실현되었다. 평택 옛이야기들이 많은데 중학생들이 읽을만하게 다시 씌어졌으면 하는 요청이 프로그램으로 실행되어 7개월간의 대장정으로 진행되었다. 설화 웹툰은 평택 옛이야기가 만화라는 새로운 예술 매체와 만나는 흥미로운 작업이었고 특히 청북중학교 중학생들이 함께 하여 더 의미있는 작업이 되었다.

설화그림책에 참여한 최현씨는 지난 해 11월 출판기념회에서 “평택에 이사 와서 16년간 철새처럼 살았다. 언제 떠나도 아쉬움이 없었다. 7개월간 옛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며 평택은 머물고 싶은 곳이자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싶





없던 이들이 ‘책’, ‘도서관’, ‘또 다른 시민’들과 만나는 기회이다. 구술사업을 통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리터러시 활동과 만난다. 안중도서관은 구술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계별 문해교육과 재가노인, 요양원에 계신 노령층을 위한 ‘마음튼튼 그림책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어쩌면 ‘너무도 평범한 이야기여서 굳이 쓸 생각이 없었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며 구술이 의미하는 말하기와 듣기라는 사회적 공동작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은 곳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도서관 구술사업은 최현씨의 소감에서 오롯이 드러난다. 도서관을 시민들과 함께 읽고 듣고 쓰고 말하며 더 넓고 깊은 소통 가능성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매개가 구술사업이다. 과거와 기억은 불변이 아니기에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소환하여 의미를 더할 때 평택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구술,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에 이른다

구술사업은 지난 해 기록가를 위한 그림책 워크숍을 책마을해리에서 진행하였다. 출판키트 체험과 이야기점빵 - 십 여명의 기록가들이 나눈 삶의 연대기 이야기를 모아 한 권의 그림책으로 만들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눈 이야기가 모여 만든 한 권의 그림책은 나와 너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시간이었다. 도서관 구술사업은 기억의 기록이라는 과정을 통해 도서관이나 책과 접점이

3. 오늘의 기록, 내일 평택의 아카이브

리처드 화이트는 가족사연구에서 “기억은 일어났던 어떤 것에 대한 기록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억은 우리가 행했던 것에 대한 감각의 변화하는 기록²⁾”이라 하였다. 기억이 감각의 변화하는 기록이기에 구술자와 면담자가 만나는 순간 과거를 포함한 평택의 오늘을 기록하는 작업이 되며 그 결과물은 평택 역사를 구성하는 내일의 사료-아카이브가 될 것이다.

도서관 구술사업 십 년을 맞아 올해는 ‘시민기록가 양성 심화과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이 기록 관련 심화교육을 통해 구술의 정의와 개념을 이해하고 인터뷰 실제, 기록의 분류, 정리 방법을 습득하여 스스로 기록

1) 한국구술사연구회 편, 2014,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 길라잡이 I : 기획과 수집》, 도서출판선인, 19

2) 랜달 C. 지머슨, 2016, 《기록의 힘: 기억, 설명책임성, 사회정의》, 서울: 민중화기협사업회, 21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중도서관은 이를 통해 이야기 공간으로 자리하고 시민들과 같이 읽고 쓰고 듣고 말한 것들을 모아 문화콘텐츠로 생산하여 도서관이 지역문화 콘텐츠를 생산, 발간하는 (디지털을 포함한) 플랫폼(platform)이 되고자 한다. 도서관이 누구나 오가는 인적 플랫폼이자 다양한 활동과 콘텐츠가 생산되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현재 구술출간물은 평택시 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는 경기도메모리(<https://memory.library.kr>)에서 볼 수 있다.

당면한 과제들 가운데 하나는 도서관 구술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구술 오디오파일, 녹취풀이 원본, 사진자료, 엽편지 등 구술활동 데이터베이스들이 유실되지 않고 지역

아카이브 자료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평택 각 권역에서 구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들이 해법을 찾기 위한 심포지엄 등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뜻을 세우고 있다.

도서관 구술사업은 “도서관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영혼들은 책을 매개로 서로에게 접근한다. 그들을 연결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소통 가능성이다. (중략) 도처에서 조용히,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교류들이다.”³⁾라는 문장과 맞닿아 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를 통한 지역과 시민의 소통의 장이 도서관과 책을 통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소사별**

3) 김현경. 2016.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0

연도	출판물 내역	참여실적(명)	시민기록가(명)	비고
	* 오성마을인물백과사전 1~4 * 평택인물백과사전 1~5 * 서부지역 옛이야기(설화) 그림책 1~10	4,038	189	
2015	오성마을인물백과사전 1	426	42	(2015~2016)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공모사업으로 운영
2016	오성마을인물백과사전 2	337	26	
2017	오성마을인물백과사전 3	419	40	
2018	오성마을인물백과사전 4	605	13	(2017~2022)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으로 운영
2019	평택마을인물백과사전 1	362	13	
2020	평택마을인물백과사전 2	346	24	
2021	평택인물백과사전 3	267	12	
2022	평택인물백과사전 4 (안중을 기억하다, 기록하다1)	534	10	
2023	평택인물백과사전 5 (평택의 노포를 찾아서) 설화그림책 발간 1~10	742	9	시책사업&길위의인문학공모



팽성생활사박물관 팽성의 ‘인생’ 나이트

윤경원 씨앤에스 주식회사 전시총괄팀장

팽성생활사박물관은 기존 안정리박물관을 새롭게 꾸민 공간으로 팽성 지역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K-6 캠프 험프리스를대표하는 팽성의이미지 뒤에 숨겨진 지역의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한 삶의 이야기를 전시하고 보존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팽성 지역의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 삶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

누군가에게는 낯선 곳이지만 ‘팽성’이라는 곳은 다양한 인생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특별한 장소이다. 이곳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각자의 행복과 슬픔을 만

들어온 사람들이 살고 있다. 팽성의 환경 변화에 따라 번영과 어려움을 겪으며 나이트를 만들었던 때도 있었다. 각각의 나이트는 개개인의 삶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팽성의 과거와 현재의 흔적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는 깊은 울림을 새겨보고자 ‘인생’ 나이트란 주제로 이야기를 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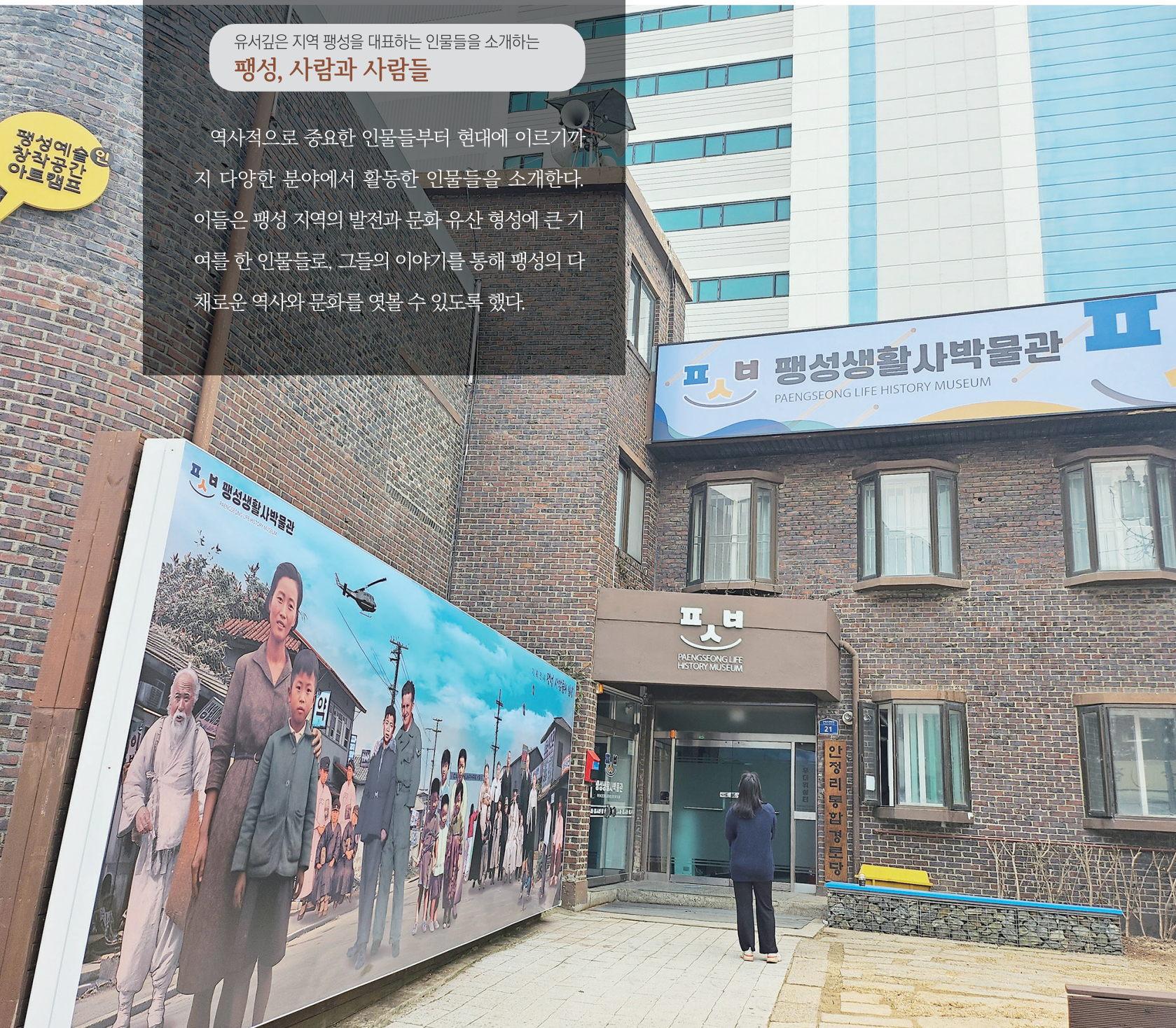
팽성생활사박물관은 팽성출신의 인물을 소개한 프롤로그(계단실), 팽성을 지역의 역사, 문화, 생활사를 이해 할 수 있는 팽성관(상설전시실)과 주민들의 손때묻은 기증전시물을 다채롭게 전시한 기증전시실로 조성됐다.

프로로그(계단실)

유서깊은 지역 팽성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소개하는

팽성, 사람과 사람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들을 소개한다. 이들은 팽성 지역의 발전과 문화 유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한 인물들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팽성의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도록 했다.



박물관 외관



1 zone



2 zone

1관 : 팽성관(상설전시실)

과거 팽택의 중심이었던 팽성의 기록과 역사를 담은

1zone 평화로운 농촌마을, 팽성

팽성이지닌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며, 과거 평화롭고 조용한 농촌마을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엿볼 수 있으며, 주민들의 삶과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격변이 휘몰아치며 변화하는 주민들의 삶의 나이트를 새긴

2zone 다양한 삶의 터전, 팽성

팽성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았다. 여기에서는 환경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는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으며, 그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팽성의 역동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공간

3zone 모두의 마을, 팽성

변화하는 팽성의 모습과 함께 삶의 흔적과 기억을 소중히 여기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공유할 수 있다. 팽성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2관 : 기획전시실

지역 주민들의 손때가 묻은 생활사 기증유물을 전시한

기획전시실

학예연구와 자료관리를 위한 '자료실'
수집유물 관리와 보존을 위한 '수장고'

팽성생활사박물관은 다른 지역의 생활사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전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팽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오랜 역사와 평범하고 고된 삶을 살아온 팽성인들의 특별한 흔적과 굴곡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팽성의

서사가 굴곡이 있을지언정 끊임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함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대함을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하고 싶었다.

팽성인들의 삶을 조명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라를 잃고, 전쟁을 겪고, 고향을 뺏기고, 바다를 메꾸며,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또 다시 고향을 등지며 성실하게 살아온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시하고 보존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들이 버텨온 것들과 사라지기 직전의 것들이 가지는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팽성인의 삶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 희망과 인내의 가치를 가르쳐주며,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며 인생의 새로운 나이테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자 가치를 공유하고자 한다. **소사별**



평택역 인근에 자리 잡은 문화예술 공간,

교차공간818을 소개합니다

이정은 교차공간818 디렉터

소개

교차공간818은 평택역 광장 인근에 위치한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얼마 전까지 남서울여관으로 영업하던 장소를 미술 및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창작, 전시, 교육, 워크숍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를 하였습니다.

설립목적

평택에는 문화예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보통의 일상 속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상시적인 문화예술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와 장르의 창작자들과 문화적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을 초대하여 일상 속 문화를 발견하고 조명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특히 변화를 앞두고 있는 평택역 인근의 구도심에 대한 여러 시선과 기억들을 바탕으로 문화적 실험들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차공간] 지역·미술

**지역에서 미술로 개업하기
: 미술은 지역에서 무엇을 했으며, 하고 있으며, 할 것인가?**



발표
최정희 김성영채원구스
채은영 임시영진

토론
김형식 무늬민류지영
안민욱 이문스페이스

진행
이정은 교차공간818

주최
평택시 문화재단
주관
교차공간818

2023.11.25.(토) 오후3시-5시
교차공간818 | 평택시 평택로57번길12, 2층

개관전 <개업의 조건: 공간, 장소, 관계>

개관과 함께 <개업의 조건: 공간, 장소, 관계>라는 제목의 전시를 열었습니다. 이 전시는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개관하기까지의 조건들, 즉 공간의 형성과 물리적 변화 과정, 본 공간과 연계된 관계, 향후 추진할 프로그램을 보여줌으로써 교차공간818을 소개하는 전시였습니다. 참여작가와 작품을 소개하자면, 황혜인의 <공간교차>는 남서울여관에서 교차공간818로 변화시키기 위한 철거 공사 장면을 담았고, BT그룹의 <지적도>는 평택역 인근 집창촌 개발 추진과정에서 사용한 토지소유 현황도입니다. 역전연구소의 <2023 연구 활동>은 시민연구원들이 수집한 자료와 역전 산책, 강연 등의 연구 활동의 진행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이경민, 평택미클의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그린 라이트>

<그린 라이트>는 BT그룹과 주간평택이 주최하고 교차공간818이 주관 및 기획을 맡은 전시입니다. 여관을 전시 공간으로 변화시킨 '교차공간818'과 성매매 업소로 활용되었던 점포 '공간 삼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도시 재개발 지역인 이 구역에서 공간의 기억과 문화적 상상력을 접목하여 전시를 진행함으로써 사라질 이 공간에서 삶의 흔적을 발견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성매매를 위한 기능적 장소로 유지되어 온 탓에 이곳은 존재하되 보이지 않고 열려 있으면서도 닫혀 있는 공간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금지되고 닫혀 있었던 이곳에 이제 들어가서 이곳만의 삶의 기억과 일상 감각을 들여다보겠다는 녹색의 시그널을 보낸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8명(팀)의 작가가 참여하여 회화, 사진, 설치, 사운드, 영상, 조경, 서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전시에서 선보였습니다. 전시를 찾은 관람객들은 평택에 전시공간이 생긴 것에 대한 반가움과 의미 있는 전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전해 주곤 하였습니다.



그린 라이트-관객 참여 작품



그린 라이트-전시 오픈



그린 라이트-전시관람 중인 관객



그린 라이트-전시관람 중인 관객



그린 라이트-전시장면

〈역전연구소〉

역전연구소는 평택역과 기차 문화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제 연구를 실행하는 연구 플랫폼입니다. 평택이라는 도시의 역동적 변화를 견인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담당했던 기차에 주목하고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기억과 미시적 문화를 발견하고 기록해 나가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시민연구원 3명과 함께, 관련 자료 수집, 평택역 주변 산책, 인천의 수인선 전시 사례에 대한 강연, 평택역 이용 현황에 대한 현장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역전연구소-시민연구원 회의사진



공사 중인 교차공간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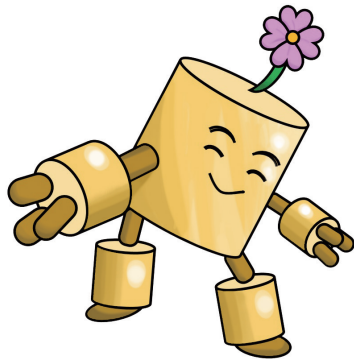


지역에서 미술로 개입하기-포럼 진행 장면

앞으로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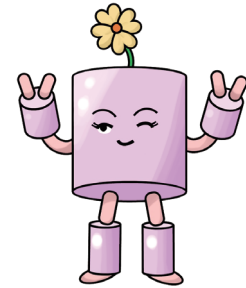
2023년 하반기에 문을 열어 두 번의 전시를 개최했고 포럼 및 토크,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에도 전시를 비롯해 다양한 부문의 사람들이 예술 창작과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교차공간818이 주목하는 것은 평택역 인근 일대가 도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물리적 변화가 예상되

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평택역 광장의 새로운 조성 and 집창촌 삼리 일대의 재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변화를 앞두고 우리는 도시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지, 기록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과 도시에 대한 기억과 다양한 시선들을 문화예술과 어떻게 교차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사별**



2023 평택마시멜롱축제

평택 대표축제로 '활짝'



신석근 평택문화예술축제포럼 대표



2023 평택마시멜롱축제 메인 포스터

2023년 10월 평택시에서 세계 최초로 곤포사일리지를 활용한 축제가 펼쳐졌다. 너른 들판이 상징하는 평택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아내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오성면 숙성리 평택시농업생태원에서 진행된 '2023 평택마시멜롱축제'는 2만여 명이 축제장을 방문해 문전성시를 이룬 가운데 평택시를 대표할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2023 평택마시멜롱축제'는 연예인 없는 축제, 거리 현수막 없는 축제, 대행사 없는 축제 등 '3무 축제'를 지향하며 모든 역할을 평택지역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 진행했다는 점에서 다른 축제와 차별화됐다.

가을철 벼 수확을 마친 논이나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축 사료 '곤포사일리지'를 모티브로 '마시멜롱'이라는



축제장 입구를 장식한 마시멜롱 그래피티

별칭을 짓고, 평택의 정체성인 농업을 ‘6차 산업’과 연계해 만들어낸 ‘2023 평택마시멜롱축제’의 시작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택마시멜롱축제의 총감독을 맡은 박성복 평택학연구소장은 “도시민이 가을철 들판에 널려있는 곤포사일리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것을 보고 이를 축제로 개발한다면 농업과 밀접한 평택의 정체성을 담은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서 축제 아이디어를 착안했다고 밝혔다. 평택시 농축산업의 특성에 착안해 세계 최초로 곤포사일리지를 활용한

곤포사일리지(Bale Silage), 그것이 알고 싶다?

‘곤포사일리지’는 수분 함량이 많은 생 벼짚이나 보리, 목초 등의 사료작물을 곤포에 밀봉하여 저장, 발효시킨 것을 말하며, 가을철 벼 수확을 마친 논이나 들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축 사료이다.

곤포사일리지의 별칭은 생긴 모양이 마시멜로와 비슷하여 초대형 ‘마시멜로’ 또는 모양이나 색상이 공룡알처럼 보여 ‘공룡알’이라고 부른다.

곤포사일리지의 무게는 소형은 300kg, 대형은 500kg 가량의 무게가 나간다. 용도는 육으로 키우는 한우,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키우는 젖소, 염소 등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 가축의 조사료로 사용한다. 한마디로 ‘소 전용 김치’라고 볼 수 있다. 500kg 가량의 대형 곤포사일리지는 2023년 기준 개당 10만원 전·후에서 유통된다. 큰 소 4~5마리가 1주일에 곤포사일리지 1개를 먹을 수 있도록 사료와 함께 공급한다.





공연자와 축제 참가자가 어우러진 한마당

축제를 기획한 것이다.

‘2023 평택마시멜롱축제’는 평택시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2023년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원사업’에 평택문화예술축제포럼이 선정돼 예산 2,000만원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됐다. 14명의 전문위원은 기획, 공연, 스토리텔링, 음악, 미술, 시스템, 마술, 그래피티, 그림자극,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 생업에도 불구하고 무대와 부스를 장식할 대나무를 채취하고 곤포사일리지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등 힘을 모았다.

또한 평택문화원과 평택예총, 우사회, 평택시농업기술센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의 네트워크는 이번 축제에서 가장 빛난 부분이다. ‘축제는 결과만이 아니라 준비

하는 과정도 축제의 일환’이어야 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평택 우사회에서는 곤포사일리지와 송아지 우유 먹이기를 지원하고, 농협과 원예농협, 축협에서는 선물로 지급할 슈퍼오닝 쌀과 배, 한우 선물권 등을 지원했으며, 각종 시설물 설치 등에 힘을 모았다. 평택 곳곳에서 평택을 사랑하는 모두의 힘이 하나로 뭉친 시간이 었다.

평택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KG모빌리티는 캠핑카 4대를 축제장에 배치해 6차 산업과 여가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목했고, 우리나라 축산복합작업기 시장 점유율 70%를 자랑하는 원인터내셔널은 곤포사일리지 베일작업과 랩핑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기계를 현장에 투입해 시민에

게 곤포사일리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줘 궁금증을 풀어줬다.

특히 첫째 날 진행됐던 ‘마시멜롱 그림그리기 대회’와 ‘허수아비 만들기대회’는 시민 참여가 빛난 프로그램이었다. 무대는 직접 베어 온 대나무와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부받은 호박, 갈대 등으로 장식했으며, 객석은 반추동물 건초 사료인 사각 베일러를 의자로 활용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무대와 의자로 꾸몄다는 호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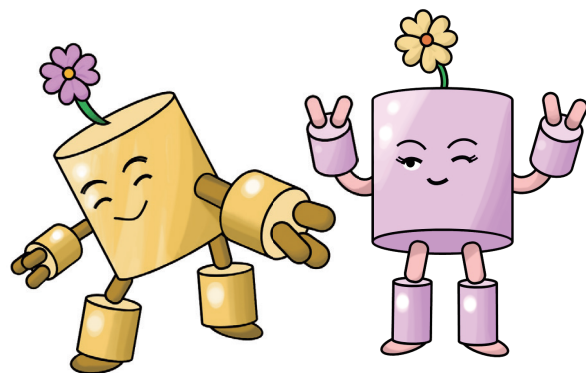
또한 짙으로 만든 놀이터는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게 구성해 안전한 놀이터로 큰 호응을 얻었다. 곤포사일리지 길면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그래피티 작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캐릭터를 그려 넣어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연날리기 체험과 그림자극 체험 부스는 관객이 길게 줄을 늘어설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그중에서도 무료시식 코너로 마련된 마시멜로 구워 먹기 체험은 이틀 분량이 하루에 모두 소진될 정도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를 얻었다.

‘2023 평택마시멜롱축제’ 현장을 찾은 한국축제포럼 축제평가단은 이번 축제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해야 할 점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번 축제가 저비용 축제라는 점과 세계 최초로 곤포사일리를 활용한 친환경에 특화된 축제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평택마시멜롱축제는 일회성이 아닌 평택을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축제로 거듭나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소사릴**



참가자들로 줄이 늘어선 체험프로그램



평택마시멜롱축제 마스코트 곤돌리와 포순이



젖소 송아지 우유 먹이기 체험프로그램

평택의 가볼만한 곳

學農園

평택어린이농장 학농원

문화사업부



나무그늘

‘체험농장’이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1971년, 진위면 동천리에는 어린이 체험농장인 ‘어린이학농원’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범식 교수와 고등학교 교사였던 박인선 여사 부부는 ‘어린이는 자연과 더불어 성장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황무지였던 땅을 일구었습니다.



감자캐기 체험



고구마 캐기 체험



쓰러진 나무에서 노는 아이들



주변에 진위천이 흐르고 논과 밭으로 둘러싸여 있던 학농원에서는 '어린이 농사 캠프'와 1박 2일 농장 생활을 체험하는 '여름 유아 캠프'를 기반으로 해마다 타이틀을 걸고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학농원에 수영장이 생기면서 물놀이를 하러 온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인근에 수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이 유일했기에, 학농원을 기억하는 평택시민들은 가장 먼저 수영장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2대로 가업을 이어받은 이철사 농장장도 선친을 뜻에 따라 학농원을 가꾸며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학농원은 계속해 가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대 이규상 농장장은 '어린이농장학농원'으로 정식 명칭을 바꾸고 체험농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숲 활동가로도 활동 중인 이규상 농장장은 평일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단체를 대상으로 숲 체험, 농사 체험을 진행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농장학농원은 옛 모습을 간직한 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촌스럽고,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덜 가꾸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며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 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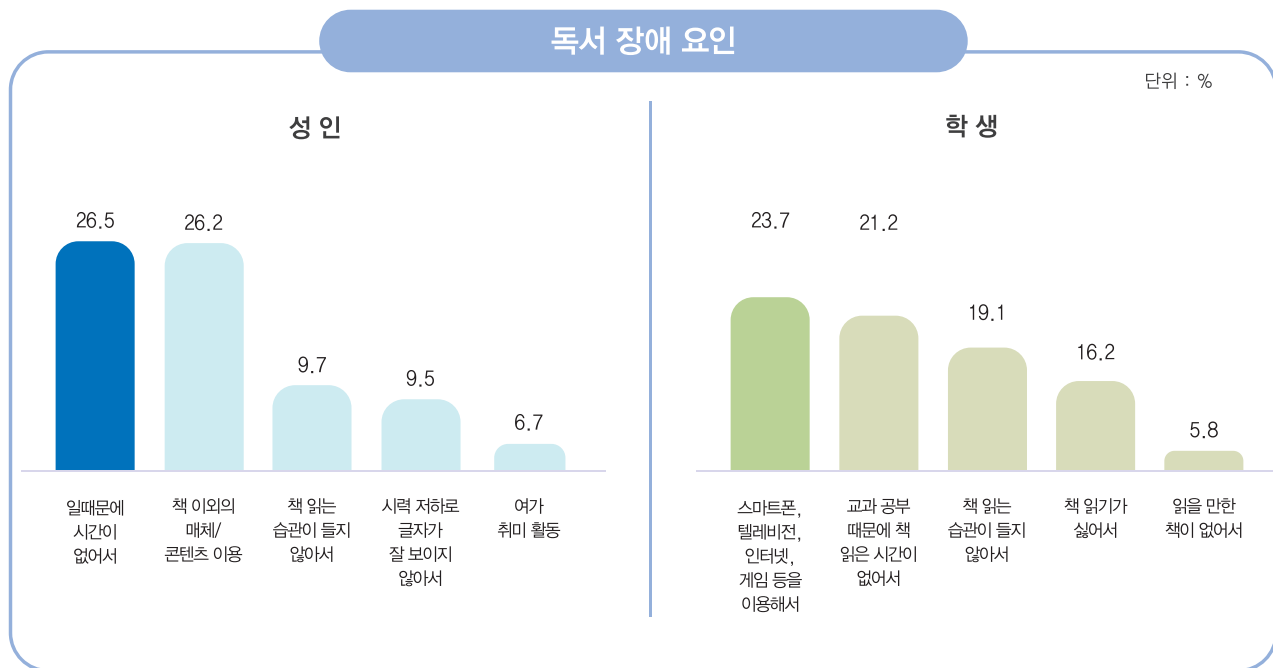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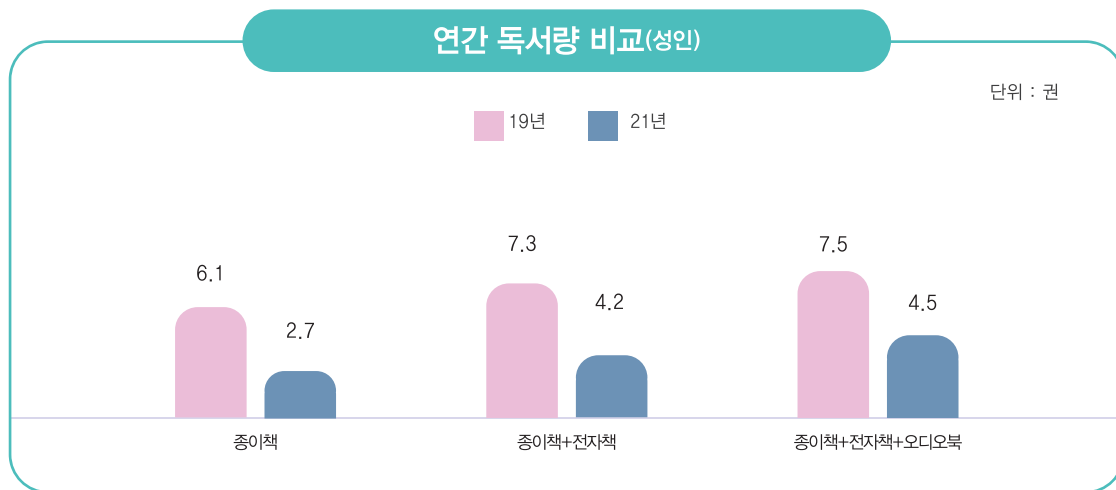
어른에게는 다소 불편한 공간일 수 있는 어린이농장학농원은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입니다. **소사별**

천진난만, ‘어른이’ 해방선언 아르카박스

최희련 경영지원부 주임
아르카박스 사진제공

“나는 책을 왜 봐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삶이 매 순간 선택이다?
글을 많이 읽으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영어 단어 몇 개 더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사유를 깊게 하고, 좋은 선택을 하는 거.
그게 훨씬 필요하더라고 살아보니까”

-홍진경의 유튜브 채널 ‘공부왕편천재’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마다 시행하는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연간 종합 독서량이 2017년에는 8.3권, 2019년에는 6.1권, 2021년에는 4.5권으로 해마다 독서율이 떨어지고 있다. 성인들은 독서가 어려운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6.5%), ‘책 이외의 매체/콘텐츠 이용’(26.2%),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9.7%)라고 응답했다.

‘책을 시간 내서 재미있게 읽을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책방이 평택에 있다. 바로 아르카북스다.

아르카북스는 ‘아르카’라는 이탈리아어로 ‘방주’라는 뜻으로 방주에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아르카북스를 운영하는 방정민 책방지기는 20년 동안 국어교사로 근무했다. 그가 아르카북스를 시작한 계기는 동화책 모임에서 활동을 하면서부터다. 그때 그가 접한 동화책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소외된 아이들로 한국의 고도성장기에 부모님이 맞벌이여서 부모님과 소통과 사랑이 부족했던 지금 어른들과 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새 아이들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선별하기 위해 만났던 모임이 그림책 공연, 그림자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임으로 확대됐다. 날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아르카북스를 운영하게 됐다.



어른을 위한 그림책



아르카생태교실



현대소설에서 만나는 우리의 문제

아르카북스는 독서뿐만 아니라 토크 콘서트, 북콘서트, 북클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상 깊은 프로그램은 ‘현대소설에서 만나는 우리의 문제’이다. 주제는 능력주의의 문제(1930~40년대 이태준 ‘달밤’), 연대와 소통이 부재된 시대(1950년대 선우휘 ‘단독강화’) 등 다양하며 현대소설과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를 엮은 강이다. 이를 통해 우리들의 고민의 원천을 되짚어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북스테이 전경



북스테이 주방

아르카북스 책방 외에도 북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북스테이는 책방의 연장선상이다. 북스테이 곳곳에 책이 구비되어있다. 물놀이를 하다가 책을 읽을 수 있고, 자연에서 놀다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북스테이를 이용하면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저녁에 단독으로 책방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타인의 방해 없이 자신만의 리듬으로 마음껏 독서할 수 있다.

책과 노니는 집. 아르카북스의 또 다른 별명이다. 이곳은 남녀노소 좋아할 요소들이 가득하다. 아이들은 다락방, 복층 등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책을 읽고, 어른들은 평택의 풍경이 탁 트인 곳에서 책과 사색할 수 있다. 또한 평일에는 어른들을 위한 강연이 있으며, 주말에는 아이들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다. 조금씩이라도 아르카북스와 같은 공간이 곳곳에 많아진다면 사람들이 조금 더 책과 가까워지지 않을까? **소사별**



북스테이 침실



북스테이 수영장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교통순경이 호루라기 불던 **교통대** (송탄구터미널)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팀

지금의 KB국민은행 송탄지점 자리는 송탄구터미널 자리다. 그 밑에 바로 교통대가 있었다. 당시 1번 국도였던 현 탄현로에서 송탄시외버스터미널과 신장동 미군 부대 진출입 차량을 교통정리 했던 삼거리를 교통대라 불렀다. **소사별**





1968년 교통대 풍경-가운데 우래옥과
오른쪽 이갑재의원은 현재 구생당약국과 오세호내과다.

교통대의 어제와 오늘



현재 택시 승강장



송복동과 자산동 신장동이 겹쳐있는 교통대 일대

2023 평택문화원 문화학교

평택에서 문화생활 200% 즐기기

경영지원부



평택문화원은 시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3년 9월 12일부터 2023년 12월 6일까지 문화학교를 진행했다.

우리 전통 종이로 만드는 한지공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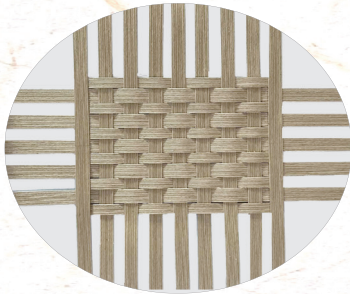
한지의 물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해보고 일상 속에서 활용한 공예다. 이번 강좌는 한지공예의 다양한 영역을 소개하고 그중에서 한지공예, 한지그림, 줌치한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색지공예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양오리기와 배접하기를 익혀서 만든 '다용도함', 한지의 특성을 살려서 회화적인 표현을 하는 '풍경죽자', '조명등'을 제작했다. 그리고 한지 3~4장을 물칠로 겹치고 손으로 주물러서 가죽 같은 질감으로 만드는 '줌치한지' 줌치한지에 손바느질하여 '한지다이어리', '줌치부엉이인형'을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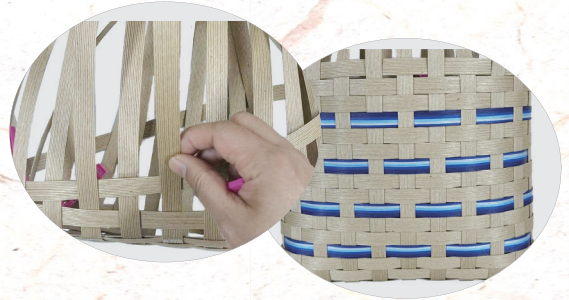
친환경소품을 만드는 에코페이퍼 밴드 공예

에코페이퍼 밴드 공예는 업사이클링 공예로 폐지를 재생한 컬러종이 밴드로 생활소품 등을 만드는 친환경 생활 공예다. 에코페이퍼 밴드 공예의 의미와 뜨개 기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테이블 수납 바구니, 핸드폰 가방 만들기 등을 제작했다. **소사벌**

에코페이퍼 밴드 공예 작품 중 나만의 개성 있는 가방 만들기를 간단히 배워보자!



1. 에코페이퍼밴드 공예의 처음 시작은 바닥 만들기이다. 모든 작품의 기본이며 기본사각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모양의 가방을 만들 수 있다.



2. 심곤을 세워 기초뜨개 방법으로 가방의 측면을 만든다. 이때 에코페이퍼밴드의 특징인 평면으로 만들어진 밴드와 화려한 컬러로 개성 있는 가방으로 연출 할 수 있다.

3. 가방 끈 만들기



4. 매듭 기법으로 악세사리를 만들어 가방을 더욱 예쁘게 연출 할 수 있다.



5. 완성된 가방

수강생들의 강좌후기



쉽음 듣고 신참했던 에코페이퍼!!
만드는 것도 좋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부담없이 만들 수 있고
쌤도 친분친분 잘 설명해 주셔서
Thank you!

수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더 많은 기법을 배우고
싶은 욕심이 나네요.
친절한 강의 감사해요!

처음 접해보는 에코페이퍼
밴드 공예! 이상한쌤 덕분에 즐겁
게! 재밌게! 한창게! 수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끝이 아닌 인연의
시작으로!

한지 그림과 공예를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와 정신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최고의 강사님께 배워서
행복했습니다.

개인시점으로 볼충남한 라점까지
다 행복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수강생들 열심히하시어서 느낌이 컸습
니다. 배워갑니다!

함께한 한지여행 즐겁고 행복했
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행복한 한지
여행을 하고 싶네요! 작품보며 함께
했던 기억날게요! 정은희쌤
감사드립니다!

2023 평택시 지역문화전문가 교육프로그램

평택역사인물 문화콘텐츠 기획

-삼봉 정도전을 중심으로-

정민두 평택시 SNS시민기자단 기자



평택문화원이 주최, 주관하고 평택시 후원으로 진행된 2023 평택시 지역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이 2023년 11월 23일(목)~24일(금) 진행되었습니다. '평택역사인물 문화콘텐츠 기획-삼봉 정도전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1박2일 경기도 평택시, 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북도 영주시를 참가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삼봉

정도전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평택시 지역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의 큰 목적은 지역의 문화예술전문가 또는 문화예술단체 운영자에게 이번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선진 지역 사례탐방을 함으로써 문화관광 활성화를 연구하기 위함입니다.

11월 23일 오전 9시 평택남부문에 회관 앞에서 버스를 타고 1박2일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답사지인 **정도전 유적지**에서는 문헌사원과 삼봉기념관 관람과 함께 삼봉문화관에서 첫 번째 강의인 박성복 평택학연구소장의 '평택역사인물 문화콘텐츠 기획' 강의를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정도전이란 인물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정도전의 생애와 함께 그 후손들이 현재도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박성복 평택학연구소장 강의 '평택역사인물 문화콘텐츠 기획'

또한 평택시의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과 지정 문화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함께 삼봉 정도전 키워드로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경기도 평택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양 도담삼봉 탐방(삼봉스토리관)

두 번째 답사 지역인 충청북도 단양 **도담삼봉**에 도착했습니다. 도담삼봉은 조선시대 개국공신인 정도전 탄생에 관련한 설화가 전해 내려오는 곳으로 정도전은 자신을 삼봉이라 자호할 정도로 이곳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도담삼봉과 함께 삼봉스토리관 관람을 마친 후 바로 옆에 위치한 석문을 감상하기 위해 가파른 산을 올라 구름 모양의 석문을 감상하였습니다. 석문을 오르며 바라본 남한강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최치선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강의 '평택은 들이다'

이제 경상북도 영주로 이동을 합니다. 경상북도 영주는 선비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선비와 관련한 유적이 참 많은 지역입니다. 이번 답사에서도 삼판서고택, 소수서원, 선비세상 등의 일정이 있어 가장 기대가 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모든 참가자들은 2층 강의실에 모여 최치선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의 '평택은 들이다', 이태훈 영주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의 '소

백산 영주 그리고 선비' **강의**가 연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신 강사님, 강의를 듣는 참가자 모두 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뜨거운 강의가 끝나고 시작된 저녁식사에서도 평택과 삼봉 정도전 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과 문화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 열정은 식사가 끝이 나고 숙소에서도 새벽까지 이어졌다는 후문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학운과 관운의 기가 아주 강하다는 **삼판서고택**입니다. 이곳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세 명의 판서가 살았다 하여 삼판서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세 명의 판서가 나왔다는 말에 참가자 모두 더욱 관심을 갖고 관람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삼판서고택은 삼봉 정도전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집이며, 유배 생활 뒤에 거쳐 한 곳이기도 합니다. 삼판서고택은 ㄱ자형의 전통가옥으로 안채, 사랑채, 행랑채, 삼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판서고택에서 바라보는 구학공원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시의 자랑 중 한 곳인 **소수서원**에 도착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금이 이름을 지어 내린 사액서원이자 사학기관입니다. 조성 중종 37년(1542)에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향을 제사하기 위해 사당을 세웠다가 유생들을 교육하면서 백운동서원이라 하였고, 명종 5년(1550)에는 풍기군수 이황의 요청에 의해 '소수서원'이라 사액을 받고 나라의

공인과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수서원의 설립 배경과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고즈넉한 소수서원과 함께 선비촌 곳곳을 참가자들이 여유롭게 산책하며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했던 **선비세상**입니다. 어쩌면 우리 평택시가 만들고자 하는 삼봉 정도전의 콘텐츠가 선비세상과 같은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영주시 선비세상은 10여 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2년 9월에 개관을 한 곳으로 대한민국 대표 K-문화 복합체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비세상에서는 한옥, 한복, 한식, 한글, 한지, 한음악 등 6가지 테마촌으로 전통 한국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개념의 전통문화관광 단지입니다. 필자는 이런 멋진 전통문화 테마 관광단지가 경기도 평택시에도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1박2일 동안 진행된 평택역사인물 문화콘텐츠 기획 삼봉 정도전을 중심으로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많은 것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평택문화원의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소사별**



영주 삼판서고택



영주 소수서원



영주 선비세상(미디어 소반 체험)

평택문화
CAFE

문화로운 오종근 평택문화원장을 만나다

경영지원부

평택문화원 제14대, 제15대 원장 이·취임식은 2024년 2월 27일(화),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임원장 이임사, 신임원장 위촉패수여, 문화원기 전달, 취임원장 취임사, 축사, 공로패 증정 등으로 진행했다.



평택문화원장 이취임식 단체사진



평택박물관연구소 주최 제2회 평택박물관포럼 '평택박물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평택박물관토론회(2015.9.18)

평택문화원의 인연과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03년에 제10대 평택문화원장으로 오용원 원장님이 취임하면서 평택문화원 임원으로 지역의 다양한 분들이 입회하였습니다. 저 또한 2004년에 입회하여 평택문화원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택문화원은 지역 문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었고 점점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평택향토사연구소(현 평택학연구소)의 소장을 맡아 이전보다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평택학연구소가 전국 지방문화원 부설 연구소 중에 손꼽는 조직으로 자리 잡도록 밑바탕을 만든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현재 평택시에서는 평택박물관 개관을 위해 많은 분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그 지역에 선조들이 살아왔던 모습, 지역의 탄생 배경 등 담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 50년, 100년 뒤가 되면 과거가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담지 않는다면 역사를 잊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로 그 실제 상황들을 글로 기록했기에 우리가 책, 영화, 드라마 등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인물인 원균 장군은 기록이 없기에 묘사하기 힘들며,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기록은 중요하다고 여겨 학계와 지역 문화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평택박물관연구소를 2014년 조직하였습니다. 연구소에서는 평택박물관의 방향성을 연구하고 국내외 선진 박물관을 답사하기도 하였으며, 다양한 전문가



평택문화원사로 활용될 (구)종덕초등학교

를 모시고 세미나와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는 박물관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고 이는 현재 박물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여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평택농악발전연구회 위원으로 평택농악이 발전하는데 노력했고, 지영희기념사업회장을 맡으며 평택 출신 현대국악의 큰 스승이신 지영희 선생을 선양하는 의미 있는 일도 했습니다. 그동안 문화원 활동을 비롯해 지역문화 활동은 상당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고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문화원장으로 어떠한 일을 추진하실 것인가요?

첫 번째는 평택문화원사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가 문화

원사를 갖고 있었다면 평택시민들과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서로 교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평택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고 함께 고민하고 풀어내야 하는데 이를 함께 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예컨대 문화학교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있어도 수업을 할 공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역대 원장님들 역시 문화원사의 건립을 지속해서 요구했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인 한계는 점점 높은 질과 양의 문화향유기회를 요구하는 시민에게 제공이 제한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는 원장으로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을 통해 건립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웃다리문화촌이 시민들이 편하고 가까이할 수

있는 유익한 장소가 되도록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웃다리문화촌은 다양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체험활동의 공간으로 요구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힐링의 장소로 시민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평택시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웃다리문화촌 부지를 인수해서 더욱 적극적인 변화를 주어 멋진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2024년에는 평택시티투어가 큰 변화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평택시에서 투어 전용 버스를 제작하여 올해 초 2년간 평택문화원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은 60만 명이 넘는 인구, 삼성전자, 미군기지, 평택항 등으로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평택시티투어를 통해 평택의 역사, 자연, 산업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에게 평택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분과위원회를 통해 임원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각자의 특징점이 문화원 사업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의 일원이 됐을 때 나의 존재감이 존중받고, 역할을 인정받았을 때 애정이 더 강해지고 잘하려는 생각을 스스로 갖습니다. 최근 웃다리문화촌에 꽃모종 식재와 더불어 나무 가지치기 등의 작업이 필요했는데 감사하게도 박철순 웃다리문화촌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원 임원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임원들이 열심히 해주는 것을 보면 저 또한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 각각의 위원회에서는 단순한 참여가 아닌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으로 역동적인 평택문화원을 함께 만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함께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는 문화원사 건립, 평택시티투어, 웃다리문화촌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함께 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기관, 단체와 함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현장에서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평택문화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사별**



평택문화원 임원 활동(웃다리문화촌 꽃모종 심기)

예술로 전하는 환경 메시지

The Forms of Thought

사유의 형태들

박송이 웃다리문화촌 주임

예술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의사소통, 표현, 연결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는 공생의 관계를 맺고 있다. 예술가들은 예술이란 언어를 통해 사회의 여러 이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자신의 작업을 사용함으로써 관객과 소통하고 대중 의식에 지속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미술관은 예술 작품을 통해 시대를 반영하고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을 고민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국내 대표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MMCA)은 기후변화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중요해진 오늘날 미술관이 어떤 고민과 실천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다원예술 2022 '미술관-탄소-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전시 관련 활동에서 비롯되는 탄소배출을 산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15개의 프로젝트(관객 참여 워크숍, 발표, 토론, 인터뷰 등)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미술관에 모여 고민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관 50주년을 맞은 아르코미술관도 국제근현대미술관위원회

(CIMAM)와 유엔(UN)이 공표한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기후위기로 인한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미술관의 운영 실천으로 이어가며 '필(必)환경 실천 매뉴얼'을 공개했다. 19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내용에는 환경 및 생태 관련 전시를 기획하고, 전시 기획 및 교육, 홍보, 시설 세 분야로 나누어 전시 기획과 설치 시 고려사항, 전시 종료 후 폐기물 활용 및 유관 기관과의 협업 방식 등을 담았다.

'사유'는 인간의 관점과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웃다리문화촌은 지속 가능한 물질의 순환에 초점을 맞춰 기획된 전시 '사유의 형태들'을 통해 환경과 생태를 위해 사유하는 예술가들에 주목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해 예술가들이 '사유(思惟)'하는 과정속에서 나타난 창의적 '형태(形態)'의 결과물들은 지속가능성의 깊은 이해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성찰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오프닝 관람자 참여 모습

2022년부터 개최된 '사유의 형태들'은 '지속 가능'이라는 큰 주제를 바탕으로 회화, 설치, 디자인, 공예, 조형, 오브제, 아트퍼니처, 영상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다. 33명의 예술가, 170여 점의 작품, 13개의 관람자 참여형 프로그램(오프닝,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 워크숍, 아티스트토크)을 통해 전시에 참여한 예술가뿐만 아니라 관람객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작가들은 일상에서 폐기되는 자원을 재료로 삼아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3R운동', 절약(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을 작업에 접목했다. 김정아의 대표작품 <9시 46분>은 지구환경의 악화 상태를 시간으로 나타낸 환경 시제이다. 작가는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해양 생물들을 직접 눈으로 본 후 해양 환경작업을 작품에 시도했다. 풍요로운 시대에 무분별한 소비와 500년 이상 썩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작품에 담았으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

았음을 전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필수품이 된 마스크 사용의 이면을 보여주기 위해 작업한 김하늘의 <스택 앤 스택, 스톨>은 플라스틱이 주재료인 쌓여가는 마스크 원단, 불량 마스크를 활용하여 의자로 제작한 업사이클 작품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부여했다.

일상에서 쉽게 소비되는 난각과 폐각을 새로운 소재로 개발한 위캔드랩의 <Oygg>와 뉴탭-22의 <Se Stone Mini incense Tray>는 인간의 과식과 욕심으로 발생하는 자원



쓰레기로 그리는 환경 이야기



워크숍 관람자 참여 모습



아티스트 토크 전경

낭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폐기 시 비료처럼 자연으로 돌아간다. 작품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제시했다.

‘사유의 형태’들은 전시 내용뿐만 아니라 전시장의 구성과 관람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홍보물 인쇄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자원을 줄이고자 현수막은 폐현수막에 손 글씨로 디자인했다. 오디오가이드를 제공해 전시회 사인물을 최소화하고 인쇄물은 친환경 및 재활용 종이를 사용했다. 여백이 있는 에코 서체를 사용하여 잉크 사용량을 줄였다. 전시대는 벽돌과 합판을 사용해 전시가 끝난 후에도 재사용할 수 있는 조립 형태로 제작해 폐기물 최소화를 시도했다.

이와 더불어 전시 기간 동안 관람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과 적극적으로 교감하는 경험을 제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했다. 관람자들은 일상에서 수집된 폐재료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참여했다. 쉽게 사용하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환경문제들에 대해 참여자 또한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을 일상에서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했다.

점점 심화하는 기후 위기는 우리 삶을 위협하며 모두가 공감하고 고민해야 하는 질문으로 가득하다. 예술이라는 언어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감을 끌어내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첫걸음을 ‘예술’을 통해 다가가기를 제안해 본다. **소사릴**

작가별 대표작품



김정아, 〈9시 46분〉 패널에 아크릴릭, 바다쓰레기 폴라쥬 87x87cm, 2020



김하늘, 〈스택 앤 스택, 스툴〉 마스크, 32x32x44cm,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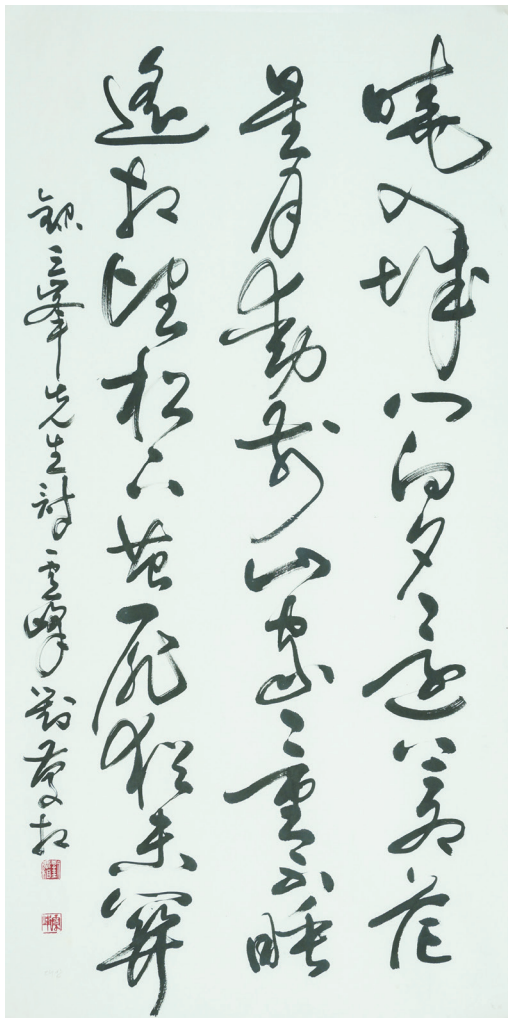


위켄드랩, 〈Oygg〉 달걀 컵데기, 업사이클링, 10.3x10x19.3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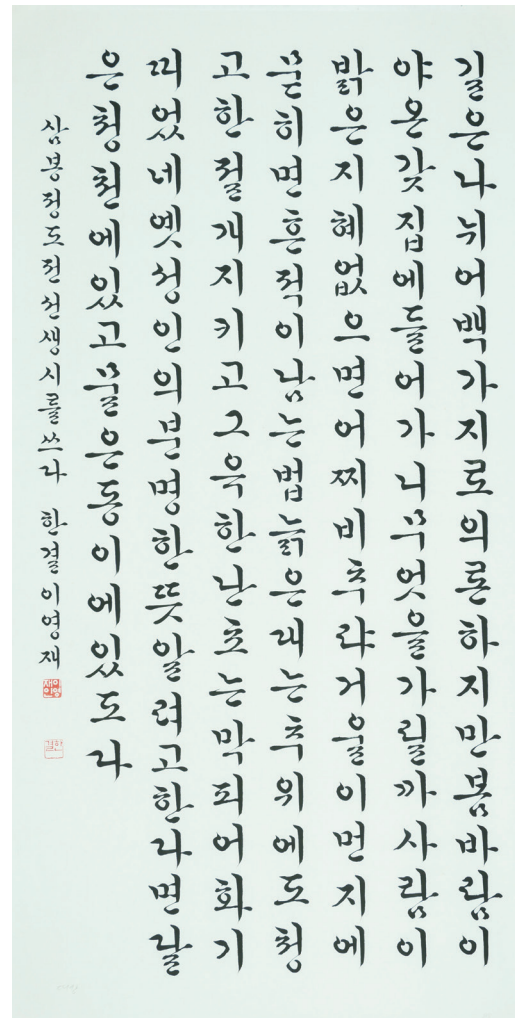


뉴텀-22, 〈Sea Stone Mini Incense Tray〉 패각, 미네랄, 천연바인더, 20x85x2cm, 2021

第11回 大韓民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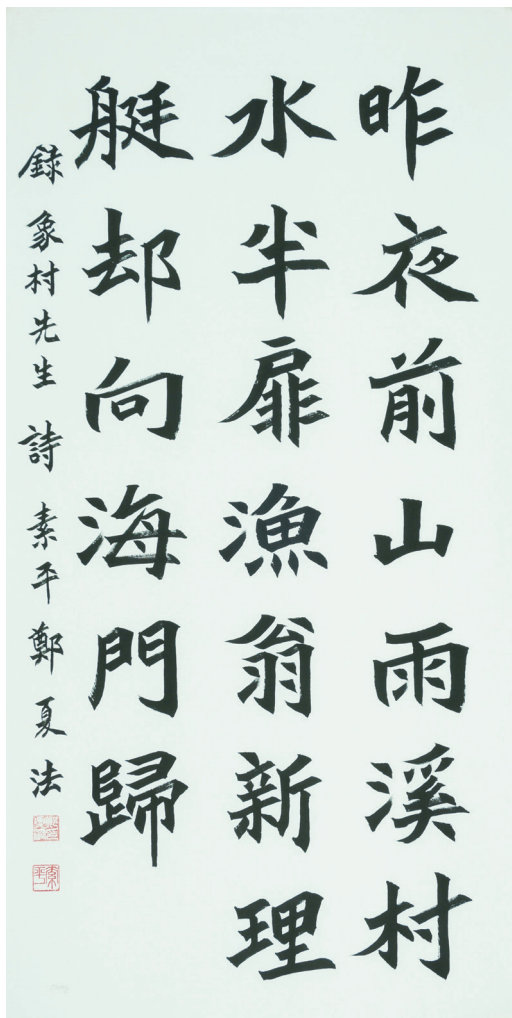


종합대상/ 윤봉 유경상
도중



부문대상-한글/ 한결 이영재
외전에 대해 물어보러 온 자가 있었다

三峯書畫大展



부문대상-한문/ 소평 정하법
삼봉선생 시



부문대상-문인화/ 소전 안연옥
수세미

소
／
사
／
별
／
화
／
보

2023년도 제70차 평택문화원 정기총회





2023 평택문화원 춘계문화탐방(전라남도 담양, 전라북도 무주)



2023 평택학연구소 자문위원 및 연구위원 회의



2023 평택시티투어

2023 경기도민속예술제_평택백중난장굿





2023 옷다리문화촌 전시연계 체험 프로그램 나만의 민화 그리기



2023 옷다리문화촌 전시연계 오프닝_사유의 형태들

평택문화원이 걸어온 길

평택문화원은 지역사회 계발과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1953년 개원하였으며, 여러 사업을 통하여 평택시민과 함께
지역문화 창조와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 # 평택의 고유문화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 지역사의 조사·연구, 사료의 수집 및 보존
 - 문화 관련 자료수집·보존 및 보급
- # 평택시 문화행사 개최
- #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 #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 #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본원의 목적사업 등

전통문화 발굴보존 사업

전통문화 발굴보존 사업
소사별단오제
평택시 정월대보름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지역 전통문화 발굴 및 재연

웃다리문화촌 운영

웃다리문화촌 운영
전시기획·운영
전시관, 운동장, 세미나실 등 시설 대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축제 등 지역문화사업

지역사 연구 및 발간 사업

평택학연구소 운영
지역사 발간 연구사업
마을조사 사업
지역사 사료 수집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문화유산 활용사업
평택시티투어

기타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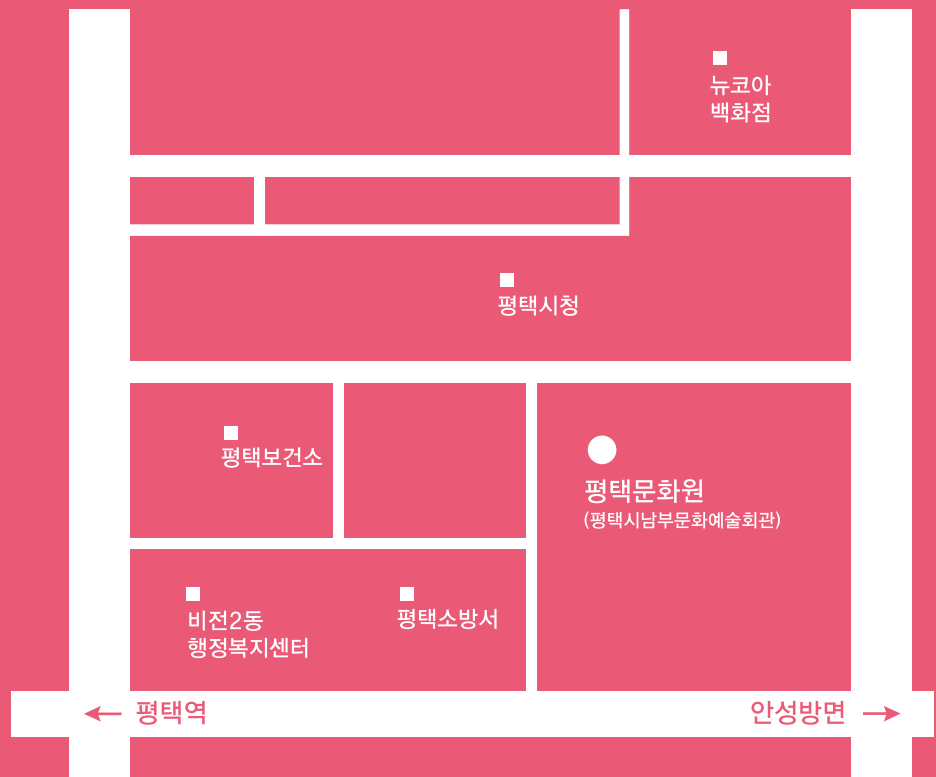
평택문화원의 연혁

2024년 3월 1일	제15대 평택문화원장 오중근 취임(재임 2024. 3. 1.~)
2021년 12월 31일	평택문화원 68주년 《평택문화원사》 발간
2021년 12월 15일	평택문화원 창립 68주년 기념식(평택시청 대회의실)
2020년 9월 24일	웃다리문화촌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금상 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2020년 3월 1일	제14대 평택문화원장 이보선 취임(재임 2020. 3. 1.~2024. 2. 29)
2018년 10월 23일	웃다리문화촌 2018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우수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5년 10월 9일	제2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최우수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4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 진흥표창(평택문화원장)
2014년 12월 19일	2014년 경기도 우수문화원상 수상
2014년 10월 17일	제10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경기도지사상)
2014년 10월 5일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은상 수상(강원도지사상)
2013년 9월 28일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경기도지사상)
2012년 3월 1일	제12~13대 평택문화원장 김은호 취임(재임 2012. 3. 1~2020. 2. 29)
2009년 10월 16일	대한민국문화훈장 수상(평택문화원장)
2007년 12월 31일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운영평가 표창 수상(문화부장관상)
2007년 10월 27일	2007 실버문화학교 프로그램 전국대상 수상(문화부장관상)
2006년 8월 1일	문화예술 체험학습장 웃다리문화촌 개관
2005년 3월 9일	평택시문화원을 평택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2003년 7월 28일	제10~11대 평택문화원장 오용원 취임(재임 2003. 7. 28~2012. 2. 29)
1998년 3월 6일	한국문화학교 지정
1995년 7월 27일	평택시문화원으로 통합(평택시문화원, 송탄문화원, 평택군문화원) 통합 초대원장, 제8~9대 평택시문화원장 유재호 취임(재임 1995. 7. 27~2003. 7. 27)
1994년 8월 24일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 문화체육부장관 제137호
1993년 10월 27일	사무국 이전(비전동 847 남부문화회관 내)
1993년 2월 26일	제7대 평택시문화원장 조중환 원장 취임(재임 1993. 2. 26~1995. 7. 26)
1989년 10월 11일	평택문화원을 평택시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1987년 8월 29일	문화공보부 승인(변경)
1986년 10월 16일	사무국 이전(합정동 294 평택시종합운동장 내)
1982년 12월 15일	제4~6대 평택군문화원장 김창복 원장 취임(재임 1982. 12. 15~1993. 7. 26)
1978년 2월 25일	제3대 평택문화원장 이상장 원장 취임(재임 1978. 2. 25~1982. 12. 14)
1972년 12월 11일	문화공보부 인가
1971년 2월 20일	평택문화원 창립총회, 제1~2대 평택문화원장 민형식(재임 1971. 2. 2~1978. 2. 24)
1953년	평택문화원 개원(설립자 장순영, 사설문화원)

평택문화원 임직원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원 장	오중근	굿모닝병원 이사	이 사	이보형	세무법인 세방 대표세무사
부 원 장	한상희	(주)동양툴테크 대표이사		유범동	캠프험프리스 수석 공보관
	이승우	(주)하이오 대표이사		김복남	여성농업인 평택시 연합회장
	김희경	굿모닝챔버오케스트라 단장		최시영	경기문화재단 이사
	박기철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김종수	평택농악보존회 이수자
	김종구	평택가우디미술학원장		김현주	라온누리통합교육연구소장
감 사	박용민	로얄안경원 대표		윤기철	-
	이충원	농업회사법인 서두물양조(주)		원영준	도시디자인 대표
웃다리문화촌장	박철순	(주)평택한냉 대표이사		원광혁	(주)YES네트웍스 대표
평택학연구소장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고윤옥	평택시학원연합회장
친 목 위 원 장	이형범	디자인창고 대표		김병준	(주)다올ENC 대표
운 영 위 원	김미영	前 국제로터리 3750 총재		김현숙	평택시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 사	김일강	(주)금풍 대표이사		정하나	독일음악학원장
	조남규	(주)JNJ아트컨벤션 대표이사	직 원	오민영	사무국장
	강길복	평택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유언주	경영지원부
	윤석규	평택대학교 명예교수		최희련	
	강기종	(주)디앤디 대표이사		강수진	웃다리문화촌
	장종덕	장종덕한의원 원장		김한솔	
	박정순	고려인삼농원 대표		김고운	문화사업부
	최창환	목화화원 대표&평택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최치선	
	이계문	서평택새마을금고 전무		황수근	
	김진수	치아사랑 치과의원 원장		강하늘	평택시티투어
	이순녀	풍년떡푸드 대표		이기백	
	조혜경	前 평택대학교 교수		이단비	

평택문화원 오시는 길



대표전화 031.655.2002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평택문화원

전송 031.654.8807
홈페이지 www.ptmunhwa.or.kr

제42호 소사별 원고 모집

평택의 종합문예지 《소사별》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시민여러분의 글과 작품을 접수 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작품은 커뮤니케이션위원회에서 검토 후 《소사별》에 실어 드립니다.

《소사별》에 작품과 글을 보내주실 분께

- 원고마감 : 2024년 8월 30일(금)
- 원고 접수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평택문화원
전화 : 031.655.2002 전송 : 031.654.8807
이메일 : ptmhw@naver.com

※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세요.
※ 원고,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